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 ▶▶ [이탈의 한물] 국가대표에서 프로로, 진주외고 1학년 윤이나
- ▶▶ [특집] 2020년 필통 선정 청소년 10대 뉴스
- ▶▶ [지역소식] 2020년 필통 선정 진주시 10대 뉴스
- ▶▶ [틴틴미슈] 청소년 전통키보드 이용 어떻게 되나?
청소년 무상교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 ▶▶ [벡랑년벡반] 삼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편
- ▶▶ [벡랑년벡반-산청] 용명고등학교 2학년 3반편
- ▶▶ [벡랑년벡반-산청] 진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7반편
- ▶▶ [벡랑년벡반-산청]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9반편
- ▶▶ [벡랑년벡반-산청] 진주고등학교 1학년 2반편
- ▶▶ [특집-19금 폭풍] 고복 입고 콘돔 사러 가다
- ▶▶ [필통살핌살] 겨울철 필통들 랩합 5종 비교분석

- ▶▶ [특집] 2020년 진주시 필통 맛집 지도
- ▶▶ [특집-JOB을 잡아라] 사라질 직업, 미래의 직업
- ▶▶ [특집-대한N진주] 숫자로 본 대학의 현주소
- ▶▶ [기고] 진주교육 - 필통기자단 대표 허윤지
- ▶▶ [필통 BEST 기사] 2019-2020 필통 선정 최고의 기사
- ▶▶ [취재수첩] 학교 도서관에 대출 금지 도서는 왜?
마킹 실수 한 번이 수능 부정행위인가?
재활용품 22.7%, 분리수거 잘못하고 있다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2월호 문제
- ▶▶ [광고] 2020 필통 신입기자단 정기모집

2021 필통신입기자 정기모집

- *모집기간: 2021년 1월 16일(토)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 *모집인원: 15명내외
- *모집대상: 진주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퇴학생도 지원 가능함)
- *문의: 전화 070-8628-1318 /
카카오톡 아이디 feltong1318
- *응시방법: 필통 홈페이지에 있는 기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로 보내주세요!
(feltong1318@hanmail.net)



2021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국가대표에서 프로로, 진주외고 1학년 윤이나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을 예약하다 “더욱 겸손하고 열정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A.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친구 분들과 스크린골프에 갔다가 볼이 맞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어요. 가르쳐달라고 많이 졸랐습니다.

Q. 자신에게 골프란?

A. 스승님과 같습니다. 그냥 운동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매번, 매순간 다른 가르침과 교훈을 받습니다.

Q.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A. 다른 운동과는 경기장이 안전 다르죠. ^^ 시험이나 훈련을 하면 산과 바다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의 보여줍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Q.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A.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좋은 결과와 연결되지 않을 때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저는 멘탈 관련 책을 읽고 위로 받습니다. 그 또한 골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Q. 골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을 알려주세요.

A. 집중력입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4시간30분 정도 경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Q. 롤 모델이 누굴지 궁금합니다.

A. LPGA 작년 US OPEN을 우승하고 신인상을 수상한 이정은6입니다. 지지치 않는 노력과 열정, 카리스마를 갖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정은6'은 같은 이름의 KPGA 선수가 많습니다. 6번째 등록한 선수입니다.

Q. 자신의 골프 경력을 알려주세요.

A.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수생활을 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합니다. 2018년 중학교 2학년 말에 국가대표

“초등 3학년 아빠따라 스크린 골프 갔다가 골프에 입문.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선발전을 통해 여자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Q. 세계최강인 우리나라 골프의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 어땠나요?

A. 간절히 바라던 국가대표가 되어 설렘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그런 부담감은 오히려 제 멘탈을 더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Q. 훈련이나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학업과 병행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골프 외에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골프선수가 된다는 것은 가족들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골프종목 특성상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시합장에 데려다 줘야하고 레슨도 받아야하니까요. 가족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도움이 없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겠죠.

Q. 골퍼를 꿈꾸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A. 한국여자골프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우

리나라 최고가 세계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꿈이 있다면 자신감과 열정으로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A. 더욱더 겸손하고 열정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세계랭킹 1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는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019, 2020년 올해까지 골프 국가대표를 했고 2021년부터 프로준비를 하고 있는 진주외고 윤이나입니다.

Q. 골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연속 태극마크 윤이나, 만 18세되는 내년 5월 프로 전향

한국 여자골프는 '화수문'이다. 실력과 스타성을 갖춘 선수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난다. 윤이나(17·진주외고1)도 여자골프의 미래로 꼽히는 재원이다. 주니어 시절부터 전국 규모 대회에서 20승 넘게 올린 '트로피 부자'다.

2년째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윤이나는 특히 지난해 제43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네 번째 중학생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7월 한국주니어선수권 우승, 송암배 아마추어 준우승 등으로 '아마추어 무대가 좁은' 윤이나는 만 18세가 되는 내년 5월2일 프로로 전향할 예정이다. 한국아마추어선수권 우승과 국가대표 2년 경력으로 KPGA 준회원 자격을 얻게 돼 3부인 점프 투어부터 시작한다. 그의 계획대로 내년 3부에서 2부(드림 투어)로 승급한 뒤 2부 투어 상급랭킹 20위 안에 들면 2022시즌부터 KPGA 정규 투어에 입성하게 된다.



〈올해 7월 용인CC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2019 KPGA_하이트진로챔피언십 아마추어 우승〉



〈KPGA 투어 SK네트웍스 클래식 경기 사진〉



〈World Junior Amateur Championship (in CANADA)_금메달 시상〉



〈The Duke of York Young Champions Trophy (in ENGLAND) 영국에서 열린 요크 영 챔피언스 트로피 2019 우승사진_영국요크공작님과 함께〉

〈취재/ 박서진(진양고2), 박경규(명신고1)기자〉

[2020년 필통 선정 진주시 10대 뉴스]

우리동네 진주에는 어떤 일이?

이·통장 제주도 연수
코로나 집단 감염
자초한 진주시



진주시가 경남도의 연수자재 권고에도 이·통장들의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통장들의 연수가 진주시 지원으로 이뤄지고 안내 역할의 공무원까지 대동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술선수법해야 할 공직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서게 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더욱이 진주시가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이·통장들을 인근 도시인 사천과 하동, 창원 등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확진자가 이어지는 시기에 단체 연수를 보냈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행정이었다는 비판이다.

진주시는 지난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이·통장 21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버스기사 1명 등 총 23명이 참여하는 '모범 이·통장 제주도 연수'를 강행했다. 또 지난 20일부터 22일에도 2박3일 일정으로 성북동 통장단 19명이 인솔 공무원 2명과 함께 제주도로 통장협의회 워크숍을 다녀왔다. 결국, 이·통장 제주도 연수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 진주시는 계속되는 확진자 무더기 속출로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전 시민이 재난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다.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정촌 화석산지 국가문화재 신청 건을 두고 문화재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 출석위원 5명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원이 원안가결했다. 정촌 화석산지의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 됐기 때문이다.

정촌 공룡화석산지 국가문화재 지정된다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가 마무리 수순이다. 진주시가 접수한 화석산지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서가 지난 12월9일 열린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절차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이관됐다. 문화재청은 내년 초쯤 위원회 심의를 열어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정촌 화석산지 국가문화재 신청 건을 두고 문화재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 출석위원 5명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원이 원안가결했다. 정촌 화석산지의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 됐기 때문이다.

경상대-경남과기대
경상국립대로
2021년 3월 통합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합이 확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폐합 시기는 2021년 3월 1일이다. 통합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은 2022학년도 입학부턴 적용한다. 통폐합 후 입학정원은 4313명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가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3위 수준이다.

통합대학 교명(안)은 당초 계획대로 '경상국립대학교'로 한다. 이 교명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거쳐 2021년 3월 새로운 교명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대학의 총장은 현 경상대 경상대 총장이 되며 칠암캠퍼스 부총장은 경남과기대 구성원의 추천안을 임명한다. 통·폐합 후 경남과기대는 2027년 2월말까지 존속하고 5년제인 건축학과는 2028년 2월말까지 존속하게 된다. 통합 이전 양 대학의 재직 교직원들은 통합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10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라진다



진주시는 2021년 새해부터 100ℓ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지 않는다. 이는 대용량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담을 경우 무게가 40kg에 육박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의 환경미화원 1822명이 부상을 입고 18명이 사망하는 등 대용량 폐기물 봉투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주시 생활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12월 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진주 비거테마공원 조성
뜨거운 감자



진주시가 1270억을 쏟아 부어 일명 '비거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발표했다.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당시 사용되었다며 조선시대 하늘을 나는 수레로 알려진 '비거(飛車)'를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비거를 개발했다는 정평구도 실존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비거는 설화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제가 되자 진주시는 뒤늦게 역사적 사실로 주장한 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관광자원화 하는 시대라며 여전히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허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도. 돈 들여서 짓고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몰릴 듯 몰려 올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분명 '비거'의 역사적 허구성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백 번 양보해서 적어도 그것이 진주의 관광자원으로 유효한 콘텐츠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주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진주 초전공원, 강주연못, 가좌천 문화거리, 진주종합경기장, 남강둔치 등에서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시내버스 232대와 공공장소 7개 구역 55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내버스 15대와 공공장소 6개 구역 58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은 △남강둔치(상평동~하대동, 주악동~가호동) △혁신도시(영천강 주변) △주민이용시설(종합경기장, 도매시장 등) △공원구역(초전공원, 강주연못 등) △경상대학교(가좌천 문화거리) 등이다. 구축사업 3년차인 내년에는 사업대상지를 문화·관광시설, 주요 시내버스 정류장,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논란



진주의 한 전직 공무원 자녀들이 각각 진주시 공무원직과 청원경찰로 채용돼 논란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경쟁률 25 대 1을 기록한 진주성 사적지 공무원 채용. 응시번호 17번 A 씨의 1차 서류심사 점수는 13점으로 1차 합격자 11명 가운데 아래에서 세 번째 점수였다. 그런데 2차 면접심사에서 A 씨의 점수는 1위로, 가장 높은 46.4점을 받아 당시 진주성에서 근무했던 경력 지원자 2명을 제치고 임용됐다. 면접관 5명 중 2명으로부터 50점 만점을 받았는데, 다른 1차 합격자 10명 가운데 만점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A 씨의 남동생도 진주시 청원경찰 채용에서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이들 남매가 지난 6월 정년퇴직 한 진주시 전 간부 공무원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채용특혜 의혹이 일었다. 채용시험 당시 해당 간부 공무원의 직책은 진주시 행정과장. 진주시 인사 실무를 총괄 책임자였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전 간부 공무원의 두 자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모두 사직했다.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은 추가적인 채용비리 의혹 제기과 함께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도 진주시 공무원, 청원경찰 채용 전수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두 번이나 표결로 무산되어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진주시는 채용과정에서 법적,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국제대 경남체육대로 교명 변경



경남체육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대는 지난 10월30일 교명변경안을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한국국제대 교명 변경은 교육부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국제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그간 어려움에 겪어왔다. 신입생 총원율이 50%p대를 밑돌고, 대학 재정난으로 임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진주학사'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한국국제대 측은 체육특대대학으로 탈바꿈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명변경 추진과 함께 체육진흥단을 꾸려 체육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여자축구부와 유도부를 창단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키로 했고, 경기지도학과 스포츠재활운동학과 등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주 칼치기
사지마비 엄벌 촉구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무리하게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차선 변경하는 '칼치기'로 버스 승객인 고3 학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 학생의 친언인인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20년 소년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SUV차량이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언니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축석루, 영남포정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승격



진주성 축석루와 영남포정사 문루가 지난 2월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승격되어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1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 되었다. 축석루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66호, 영남포정사 문루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67호로 고시되면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던 것은 해제 되었다. 축석루는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보 제276호로 지정되어 있었고 전쟁 때 불탄 것을 진주시민들이 성금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왔다. 시는 진주성 내 축석루는 물론 안내 시설물 등을 고시에 맞추어 정비하고 홍보물도 재정비 할 예정이다. 또한 진주성 내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문화재 승격 유역을 발주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유적지의 명성에 걸맞게 문화재의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필통편집국]

1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사회 학교는 온라인 수업중

올 한해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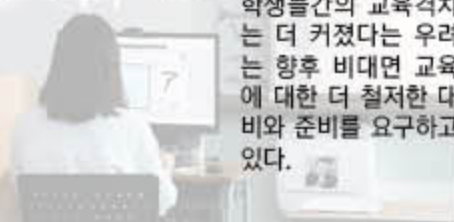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비대면 사회로 변화되면서 대표적으로 환경이 바뀐 곳이 교육분야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행됐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네 차례 연기된 끝에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 5월부터는 등교도 시작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올 한해 내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년, 학급별 격주 등교와 등교,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는 방안 등

을 제시했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은 매일 학교에 나가고 다른 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비대면 수업에 따른 강의 질 저하로 인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의 실효성,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여러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더구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간의 교육격차는 더 커졌다는 우려는 향후 비대면 교육에 대한 더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2 청소년 무상교통시대. 화성시 청소년 버스비 무료 첫 무상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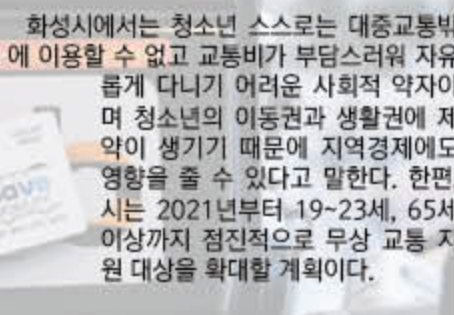
화성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7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무상 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단 좌석버스나 광역, 시외, 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 7~18세 아동·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화성시 무상 교통 홈페이지(savebus.hscity.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카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화성시 무상 교통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서는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이며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19~23세, 65세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무상 교통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 N번방의 괴물들 충격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를 비롯해 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 'n번방' 개설자들이 검거됐다. 지난 3월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착취물을 유료로 판매, 배포하는 '성범죄 대화방'이다. n번방은 1번방, 2번방, 3번방 등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 방을 달리해 흔히 n번방이라고 불린다.

특히 여러 n번방을 총칭해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비밀 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들은 방장 '박사'와 관전자들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음란 행위 영상을 촬영하거나 칼로 몸을 긁는 등 자해도 서슴없었다. 수천 명의 채팅 참여자들은 피해자 여성을 두고 '노예'라고 칭했으며 이를 하나의 놀이처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월 18일에는 n번방 사건의 핵

심 인물인 '박사' 조주빈이 가장 먼저 검거됐으며 뒤를 이어 '와치맨' '갯갯'이 체포됐다. 특히 갯갯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문형욱은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월 12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10대 일당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필통 선정

4 빌보드에서 그레미까지 현재진행형인 BTS의 놀라운 기록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8월 공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또 한 번의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이 곡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이후 2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빌보드 역사상 '핫 100'에 1위로 데뷔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43곡뿐이다. 특히 2주 연속으로 정상을 유지한 곡은 20곡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다. 미국 빌보드가 지난 10월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지키며 통산 세 번째로 두 차트 동시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전주 대비 두 계단 오른 20위를 차지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팝 송' 11위, '캐나다 핫 100' 12위, '스트리밍 송' 16위, '어덜트 팝 송' 19위를 기록하며 발매 세 달이 지난 후에도 견재함을 자랑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역시 새 기록을 추가했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동시 접속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고 역대 최고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을 세웠다. '다이너마이트'는 통산 열 번째 5억 뷰 뮤직비디오로 기록됐다. BTS 유튜브 기록 추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총 26편의 역 단위 조회 수 뮤직비디오를 보유 중이다.

내년 1월 31일 한국 대중음악 가수로 처음으로 '그레미 어워즈' 후보에 올라 있다. 미국 시사 잡지 타임은 최근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연예인'(Entertainer of the Year)으로 선정했다. 그레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높다. 이후에는 어떤 기록이 기다리고 있을까.



유튜브 뒷광고. 유명 유튜버들을 눈물짓게 한 뒷광고 논란

지난 9월 일부 인기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뒷광고란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시킨 채 콘텐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뒷광고 논란의 발단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었다. 이들은 일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제품을 소개하는 양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특히 유튜버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한혜연은 신발을 홍보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 발각돼 공개 사과에 나섰다.

뒷광고에 대한 잡음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내부 고발성 폭로가 이어졌다. 유튜버 '애주가TV참PD'와 '홍사운드'가 업계에 만연한 뒷광고 실체를 언급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으면 유튜버가 광고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고 효과가 좋아 기업들이 선호한다는 것. 특히 고액 단가의 광고를 받은 유튜버 중 이를 투명하게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폭로해 파장을 낳았다.

이에 잠자코 있던 유튜버들은 너도나도 고해성사에 나섰다. '양팡' '보검' '문복회' '명개명' '햄지' 등이 줄줄이 공식 사

과를 했고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배우 기은세와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 등은 게시물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뒷광고는 온라인 마케팅이 각광받기 시작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은 광고주에 한정돼 있었기에 인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것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던 게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관한 개정안을 시행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 관련 10대 뉴스

6 자녀체벌 법으로 금지 민법 '부모징계권' 60년만에 삭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62년간 유지됐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왔다. 더욱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 조항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훈육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징계권 해석에 따라 친권자가 아동을 체벌할 경우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친권자 체벌인 경우 민법 915조가 정상참작 근거가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 조항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체벌허용국가'로 분류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7 18세 선거권 시대 첫 선거 청소년, 시민 '아직'과 '이미' 사이

지난 4월 15일에 시행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만 18세 이상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즉, 올해 선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중 선거일 다음 날인 4월 16일이 생일인 사람까지 선거가 가능했다.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약 53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져 고등학생들이 선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 '교실의 정치화'는 큰 이슈였다. 입시까지 함께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교실의 정치화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 즉 10대들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18대는 10대 유권자의 33.2%, 19대는 47.2%, 20대는 53.6%를 기록했고,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는 10대 유권자의 54.2%, 18대는 74%, 19대는 77.7%로

회를 거듭할 때마다 계속해서 투표율이 증가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만 18세의 선거권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만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었음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부족했고 이는 매우 실망과 우려를 자아냈다. 모든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도 이제 선거권이라는 힘이 생겼고, 청소년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정책적으로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청소년이 더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온다.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를 갈 때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떠오르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대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시내 도심일대나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7년 7만 5000대, 지난해 9만 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킥고잉', '쌍쌍', '라임', '고고씽', '빔' 등의 국내외 다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그동안 차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

화 법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상반기 또 한 번 제도가 바뀌게 됐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벌칙규정(벌칙금 20만원 이하)이 없어졌고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벌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결국 4개월 동안은 규제가 풀려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제재할 수 없다. 이 사이에 일어날 혼선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마련된 전동 킥보드법은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안전규제를 지나치게 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9 포털 사이트 댓글 폐지 연예, 스포츠 면까지 폐쇄된 포털 댓글창

포털 사이트가 악플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해 10월 연예 기사 댓글 폐지를 확정해 이어 올 2월 20일에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도 다음의 행보를 뒤따랐다. 네이버는 지난 3월 5일부터 연예 뉴스 댓글과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익명성에 기대어 연예인들에게 퍼붓는 무분별한 비방과 악플이 문제시된 때문이다. 고 설리·구하라의 물론 앞서 세상을 떠난 배우 최진실, 가수 유니 등도 악플에 시달렸다.

이어 8월에는 스포츠 기사 댓글도 폐지됐다. 스포츠 선수는 직업 특성상 날 선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시돼 왔기에 비판의 칼을 쓴 도 넘는 비난이나 악플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8월 1일, 여자 배구

선수 출신 고 고유민(25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악플이 거론됐고 공론화되면서 댓글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포털 사이트가 '댓글 폐지'라는 초강수를 내세웠으나 악플 근절의 완벽한 대안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악플러들은 SNS, 유튜브 등을 옮겨다니며 지능적으로 혐오를 확산 중이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연예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댓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트리머와 유튜버들 또한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1인 미디어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더 쉽게, 자주 악플에 노출된다.



10 54일 최장 역대급 장마 2020년 한국, 기후재앙 이미 시작

기후변화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기가자 현실이다. 기후변화는 빨간 사과를 하얗게 만들었다. 겨울철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명이 늘어났던 왕우렁이는 벼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꿀벌은 때로 죽은 채 발견됐다. 제주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지역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서리, 역대 최장기간 장마,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유독 잦아 전국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먼 나라 뉴스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새 폭염과 장마, 폭설이 잇따랐다.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기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떨치고 있다. 지구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해류와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탓이다. 특히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가 1880~2012년 사이 0.85도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에선 1912~2017년 사이 1.8도나 올랐다. 기후위기를 유

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50년 뒤엔 감귤이 제주도가 아닌 강원도에서 자랄 것이라란 무서운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장마만 봐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소멸하지 못하고 장기간 한반도에 체류한 데다 잇따라 출현한 태풍들과 뒤섞였다. 그러다 보니 비가 내릴 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무섭게 쏟아붓다가 잠깐 해가 뜬 언젠가 그랬나 하는 듯이 폭염이 시작됐다. 불과 하루 새 장마와 폭염, 장마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현재 산업군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와 산업구조, 국민 의식을 전환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정책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처는 인류와 문명의 생존이 걸린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 새로운 기후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맏칸년맏반-신청] 진주제일여고 1학년9반편

문과반의 탈을 쓴 제일여고 예체능 반! "선생님 저희는 체육이 하고 싶은 걸요.^o^"



문과 반이라는 탈을 쓴 예체능 반이다. 음악시간에도 "9반의 목소리도 제일 크고 합창하면 잘하
겠네, 체육시간에도 "그래도 9반이 다른 반보다 대체로 다 잘 하네"라고 늘 칭찬받는다. 솔직히
다양한 국어 선생님의 수업에 우리가 이렇게 예체능만 잘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반
은 공부보다는 개그, 운동이 더 좋다. "선생님 저희는 체육이 하고 싶은 걸요..."

우리반 담임 김현지 선생님

국어에 담당하고 계신다. 다른 반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을 무서워하
는 편이지만 우리 반에겐 더 없이 착하고 다정한 선생님이다. 매사
에 열정이 넘치셔서 제일여고의 유능한 후배도 과언이 아니다. 방
금 급식소 앞에서 봤던 선생님을 교실 앞에서 또 마주칠 정도로 여기
저기 번뜩이신다.

나의 MBTI & ID공개

이름	이상형	나의 한마디
강민지	INFP	메리 크리스마스~
김민경	ENFP	@04_minn
김민주	ENTP	키 170cm이상에 무쌍이고 강아지상에 자상한 남자
김채은	CUTE	♥
남현진	INFP	@n_hyu_6
박다송	ESFP	안녕
박민서	ISFP	@yaelliseo
박서진	ISFP	@p_0_sil_e
박세영	SEXY	@seyoung_17
안혜빈	INTP	◇*_◇
오채연	INFJ	2023년도 수능 만점자
왕은서	ENFP	초전초, 진명여중 애들이! 통창회로 해쳐모여!
이소영	ISFJ	@isy_00218
이현주	INFP	부승관 개사랑해
임소현	ISFP	@seraphic_shx
장다경	INFP	□□□□□
장지연	ENTJ	막내가 10년 뒤에 군대가는 NCT 맏관부
정여진	BABY	@y_ji0914
조유빈	ENFP	@bin_bin_/로버트 에드워드 드왈츠 제임스와 교 제중♥
최민서	INFP	@choiims_04
최수민	ISFJ	방구석인싸♥
최시민	INTP	@simin0218
최윤서	ENFP	@yunse0_8
하민주	ESFP	김선호♥

우리 반의 굵지 않은 복권



최시민:인사성이 밝아 영
어선생님이 최고의 시인
이라고 부른다. 예쁘고
말을 잘한다. 핑크 목도
리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시인에게 어울린다. 유
쾌한 아저씨 같아서 매우
친숙한 느낌이 든다. 시
민이가 카우고 있는 포포
만 고양이를 닮았다.



김민주:자신의 꿈을 확
실하게 정해 열심히 달려
나가는 성실한 친구다. 2
단 뛰기를 잘해서 우리
반에서 줄넘기담당을 맡
고 있다. 그림도 정말로
잘그린다. 민주가 그린
표범과 호랑이가 정말 살
아 움직이는 것 같다.



최수민:뺨을 많이 가리고
수줍음이 많다. 숨겨진 매
력이 너무 많아 항상 새로
운 모습을 본다. 알파카를
달은 귀여운 아기토끼<이
태용님을 엄청엄청엄청
매~~우 좋아한다. 그리
고 세영이에게 4가지 없
게 구는게 정말 매력있다
>



박민서:조용한 줄 앉았는데
제일 시끄러운 친구 1
호다. 우리 반의 대표모델
이다. 필통신문 나온다고
진짜 기대가 많다. 밥 먹
으면서, 수업시간, 어디든
가리지 않고 트림을 잘하
다. 제일 장이 큰친구다. 이런 트림장이는 처
음이야...♡



최민서:눈이 얼굴의 반이
라고 할 정도로 눈이 정
말 크고 예쁘다. 우리 반
아이들이다. 웃는 게 백
설공주보다 예쁘다.(진짜
부러울 정도다.) 고부기처
럼 찌꼬맴고 귀엽다. 처
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기절 할 뻔했던 친구가
있을 정도다.



조유빈:우리 반 김고은이
다. 향이라는 귀여운 고
양이를 키우는데 유빈이
랑 닮았다. 반의 분위기
메이크업아티스트^^ 아
침마다 찾아오는 삼색 고
양이 삼색이가 오면 '삼
세기 맘마' 하면서 간식
을 챙겨주는 삼색이 어무
니다.



정여진:터프한 윗집오빠
같이 털털한데 잘 웃는다.
반장이 조용히 하라고 말
할 때 매번 도와준다. 박
력 넘치는 터프가이♡ 맨
날 잠만 자고 초코바만 먹
는데 공부하는 잘한다.(크
키 초코바를 제일 좋아하
다.) 패피로 패션이 아주
적인다.



박세영:딱 봐도 한지민이
다. 처음에는 좀 도도한
인상. 첫인상이랑 완전 다
른 반전녀다. 눈이 정말
예쁘고 머리 묶으면 완전
청순한 미녀가 된다. 호랑
한 웃음소리가 매력있다.
미모를 담지 못하는 셀카
실력. 실물이 훨 더 예뻐
요 여러분!



김채은:도저히 따라하기
힘든 먹으면서 하는 다
이어트의 최고 권위자다.
자세가 바르기로 유명하
다. 귀엽고 재밌고 매력
적인 캐릭터다. 생각보다
수업을 꽤 열심히 듣는
다. 목소리가 매력적이고
염모습이 예쁘다.



최윤서:진짜 다리가 길어
서 피지컬 장원영이라고
불린다. 첫인상과 나중이
너무 차이가 있는 반전매
력의 소유자다. 가끔 영
동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
지도 마음이 여리다. 발
표할 때 말을 푹 부러지
게 잘한다. 매력이 철철
우리 윤서♡



임소현:멋있는 반장이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매
력적. 웃는게 귀여운 반
대표 아재다. 04년생 74
년생이라 해도 믿을만한
아재적 신공.(고릴라 아재
그를 못 받는 슬픈 현실)
뺨을 잘해? 고통스럽어 예
비1등이라 불린다. 자신의
강아지 밀크와 닮았다.



왕은서:왕리어나그란데라
고 불린다. 가끔 특목 던
지는 개그가 재미있다. 영
통99%에 매력1%가 섞인
느낌. 매력이 진짜 철철
넘치는 매력 대장♡ 성격
좋고 워낙 열심히. 이미
지랑 목소리랑 반전. 완전
뽕 부러지는 은사가 좋아
~



박서진:깜찍한 목소리와
귀여운 파닥거림의 소유
자. 엉뚱하고 다람쥐 같
은 귀요미다. 발표할 때
제일 귀엽다.♡ 하지만 친
화하면 조금 무서워진다.
귀여움을 빼면 001정
도로 사진이외의 큰 장점은
귀여움이다. 깨물어 주고
싶네~♡



김민경:우리 반에서 키
를 알고 있다. 정말 잘 배
져서 잘 보살펴줘야 한
다.(민포배...) 하지만 친
화력이 정말 좋고 남을
잘 도와준다. 한국사를
매우 잘한다. 반 대표 분
위기 메이커로 민경이 빠
지면 교실에 활기가 없어
진다.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



우리 반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리 작지도 않은
트리 하나 있다. 이 트리
는 부반장이 협찬해 준 나
무로 시작됐다. 시험이 끝
나자마자 반 친구들이 함께
우리 반을 크리스마스 파티
장처럼 꾸몄다. 앞에는 크
리스마스 트리, 창문에도
예쁜 그림을 그렸다. 예쁜
트리와 크리스마스 선물,
눈사람, 루돌프도 있었다.
교실을 꾸미면서 확실히 느
낄 수 있었다. 우리 반은 정
말 마음이 통하는 진심녀들
이 모여 있음을...^^



[맏칸년맏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반을 필통을 통해 알리고 자랑하고 싶다면 신청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작성해 필통 공식 메일 feellong1318@daum.net 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feellong1318로 보내 주세요. 남, 여학교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정된 반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①신청 반 ②신청자, 연락처 ③신청 이유 ④지면을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 간략한 계획

*맏칸년맏반의 구성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반이 자유롭게 내용을 기획해도 됩니다.

[신청/ 박민서와 진주제일여고 1학년9반 친구들]

[틴틴이슈①]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 어떻게 되나?

전동킥보드법 또 개정 만 16세 이상 면허 있어야 탄다

-2021년 4월까지
-만 13세이상이면 면허 없어도 OK
-오락가락 정책에 '안전공백' 생긴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관련 정책은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월 9일 국회가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또 다시 법을 개정했다. 사용 연령 기준 완화와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을 다시 고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운전자-동승자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 장치 미착용 ▲악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국회에서 스스로 바꾸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당분간은 공백이 따른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국무회의 의결-공포 이후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총정리!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없이 개인소유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고, 안전성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오고, 청소년 사고 급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국회에서 재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달라진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라이더가 꼭 알아야 할 부분, 필독에서 꼭 짚어 드리겠습니다.

만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사항과 2021년 상반기(4월)에 시행 예정인 내용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2월 10일 시행된 법률 기준으로는 만 13세 이상은 (본인 소유 기기)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본 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은 앞으로 4달 동안만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8세 이상 대여 가능하며 만 16, 17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고 대여하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이용!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 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 부득이하게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보행하세요.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횡단보도 통행은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부상 사고는 약 700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함께 보호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범칙금 적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무로서 처벌은 따로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동승 탑승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이라고 합니다.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지정 주의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거처 제한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 등 공유 PM을 집중 관리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겠지만 하고 넘기기에는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보도 중앙, 산책로, 점 자발로,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등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단속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포함한 자전거, PM 즉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도로 미통행, 인도주행 등은 경고 및 계도활동을 하면서 경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틴틴이슈②] 청소년 무상교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등하교 교통비는 국가 책임 등하교도 교육의 일부분, 무상교통 논의 할때

경기도 화성시에서 청소년들의 등하교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소위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해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 급식, 무상 교복에 이어 무상 교통까지 뒀던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 청소년들 이동권, 특히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의 추진 배경을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버스나 교통편을 이용해 오가는 곳이 학교라는 것에 있다.

학생들은 아침이면 학교를 간다. 분명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모든 국민은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는 그만큼의 의무를 가진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은 분명 개인적인 판단으로 눌러 다니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

니라 교육이라는 공적인 영역속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이 교육의 일부라고 누구나 인식한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지워지거나 반부채를 따짐 없이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 밥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매일 오가는 학교 교통비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시내버스회사가 손님이 없는 외진 곳에도 정기적으로 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단 몇 명이 살아도 그들의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텅 빈 버스일지라도 반드시 운행한다. 그러면 버스회사는 그만큼의 적자를 볼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준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은 날마다 2,000원씩의 버스비를 내야 하는 것일까? 절대 당연하지 않은 일이

다. 학교를 오가는 비용이다. 분명한 교육의 일부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법적으로도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고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왜 날마다 발생하는 등하교 비용은 학생들의 개인 부담이 되어야 할까?

만일, 청소년이 아니었다면 이런 교통비를 가만 두었을까? 어른들의 병역의무라는 예비군 훈련조차도 식대, 교통비, 수당이 주어진다. 그런데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단지 당사자가 청소년들이라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학교 등하교 비용은 우리나라 교육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가기도 하다. 화성시의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은 어느 한 부유한 지자체의 인기형질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구분	현금	카드
일반 (만 19세 이상)	1,500원	1,450원
청소년 (만 13세~18세)	1,000원	950원
어린이 (만 6세~12세)	750원	700원

* 카드 이용시 50원 할인 및 무효환승제 혜택이 있습니다.
화성시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실험

화성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5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처음이다. 앞서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시했다.

2020년 11월부터

화성시 만 18세 이하

버스비

페이백

쓴 만큼 돌려받는다

화성시

올해 무상교통 지원 대상은 화성에 사는 만 7~18세 12만2283명이다. 이들은 화성시 안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타면 비용을 현금받을 수 있다. 좌석, 광역, 공항버스 등 관외를 통행하는 버스요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 소요 예산은 24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25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은 250억 원을 책정했다.

무상교통은 후불지원 방식이다. 매일 사용한 교통비는 교통데이터 요금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통행요금을 정산한 뒤 다음 달 20일경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용한 교통비는 단 한 건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개인 통장으로 전액 입금된다.

[맏칸년맏반-신청] 진주중앙고등학교 1학년7반편

무엇이든 열정이 넘치는 반! 성적 일등도 우리 것, 공부돌이 7반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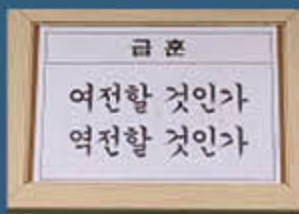
중앙고에서 가장 모범적인 반, 분위기가 잘, 모든 선생님들도 엄지 척을 들러 올리며 인정한 반이 있다. 바로 1학년7반이다. 모든 열정적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수업분위가 최고라는 칭찬이 자자하다. 전교 상위권과 특성과목에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로 꽉 찬 반이다. 학기초에는 다들 서로 말을 하지 않아 몰랐는데 큰데려와 학하고 속 깊은 친구들의 집합소,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고 싶어 매일 기도하는 우리반, 1학년 7반을 소개합니다.

우리반 담임 박청진 선생님



꾸근하고 인상 좋은 아저씨처럼 학생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담임선생님, 국어를 가르치시는 박청진선생님은 중앙고의 "반갑다" 유행어의 창시자이다. 학생들을 만나면 환하게 웃으시며 '반갑다'를 외쳐 주신다. 항상 반 친구들을 위해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 관심, 배려의 아이콘, 선생님을 감사합니다.^^~

특 튀는 우리 반 금훈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바꾸면 나의 미래가 바뀐다는 말이죠. 우리 1학년 7반은 미래의 드라마틱한 역전을 위해 지금 현재 꿈틀대고 있습니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곽서경	키 크고 매력 많은 남자	X
마서윤	잘생긴 남자	nooyoesam_
박해빈	잘 웃는 매력동이X	인스타 박해빈 hyebzziii
백지혜	착하고 키 크고 귀엽고 세심한 사람	jihy3253
이도원	귀엽고 착한 남자	X
이민희	키 크고 웃는게 예쁜 남자	min_~ni0
전민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	minroud
홍보민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	only_bomin_4
황예진	배울 점이 많은 남자	jini_~yeah
강동완	예쁜 여자	줄리다
강현빈	귀여운 여자	hyun_~bini04
김정훈	인성 좋고 잘 챙겨주는 여자	X
박성진	메사에 긍정적인 여자	싸우지 말자
박시우	밥 잘 먹는 여자	suooong_04
오예준	나랑 잘 어울리는 여자	X
장민준	귀여운 여자	juni_9163
제갈 승현	게임 좋아하는 여자	여자소개 좀
제준호	니만 바라봐주는 여자	너 말이야
조상현	애교쟁이X	sanghyeon_7
조준우	말 잘 통하고 키 170이하	june040828
최운영	내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여자	게임하자
최향	자신감 있는 여자	공부하자
황지완	내 여자친구	농협 251 1051 3759 03 용돈

우리반 인물 사전



곽서경: 키가 큰 우월한 유전자. 한해진을 따라가고도 남을 우리 반 기럭지를 담당이다. 말이 없어보이지만 가끔 호탕한 웃음을 낼 때면 주위 친구들을 당황하게 한다.



마서윤: 처음엔 조용히 아무 말이 없어 시끄럽다고 느꼈을 그녀. 그러나 반전. 친해지면 엄청 말 많은 수다쟁이가 된다. 성격이 좋고 발랄한 우리 반 유일한 유학파다.



박해빈: 얼핏보면 말 없고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정이 많고 웃음이 많은 친구다. 우리 반 웃음폭탄 리액션 담당으로 7반의 부대령님이다.



백지혜: 가만있어도 기분 좋은 분위기를 전파시키는 친구다.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웃음전파사다. 웃는 모습도 재미있고 착한심성을 가졌다. 시우를 많이 웃기는 수학쟁이다.



이민희: 조곤조곤하게 말하지만 누구보다 의사표현이 확실한 친구다. 성격도 착하고 한문소녀로 불릴만큼 한문은 적적박사 수준이다. 우리 반 차분~담당이다.



전민경: 낮을 많이 가려 처음엔 말도 없고 조용한 편이지만 친해지면 본색이 드러난다. 활발하고 호탕하게 잘 웃는 편. 장점 추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복스럽게 많이 먹는다.



홍보민: 첫인상은 좀 세 보인다. 노는 언니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배려심이 넘칠 수가 없다. 달걀을 무지 좋아하는 우리 반 분위기메이커다.



황예진: 처음 많은 아이들 노는 친구처럼 생겼으며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로 공부도 잘하고 깔끔한 매력있는 7반존예이다



박성진: 키 크고 눈이 예뻐 원지 잘 나갈 것 같은 친구다. 그런데 완전 게으름으로 친구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녔다. 엉뚱한 매력으로 반 분위기를 돌우는 눈 예쁜 게그남.



박시우: 우리반 반장이다. 학기 초 일등 조용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텐션 반장 겸 썬 반장. AGAR 다이어티지만 워튼 잘하는 다재다능한 능력남이다.



정민준: 우리 반 진정한 헬창이다. 단백질을 좋아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장발의 사나이로 남학생들의 부러움을 산다.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근육남이다.



제준호: 첫인상은 시크 그 자체다. 알고 보면 생각이 깊고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며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이 매력적인 친구다. 진지충 존잘남으로 불린다.



조상현: 중앙고, 아니 자칭 진주 손흥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반을 대표하는 축구스타다. 말이 없어 보이지만 정년까지 넘치고 말뼌세도 예쁜 시크남이다.



조준우: 학기 초 키 크고 말 없는 친구처럼 보였지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마력을 가져 누구나 쉽게 친해지게 된다. 은근 큰데려로 7반 매력남이다



최향: 이름만으로 기억되는 강렬함이 있다. 장난도 무지 잘치는데 의외로 과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뇌섹 능력남이다. 이런 친구를 학기 초 말이 없어 무서워했더니.



[맏칸년맏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반을 필통을 통해 알리고 자랑하고 싶다면 신청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작성해 필통 공식 메일 feelong1318@daum.net 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feelong1318로 보내 주세요. 남, 여학교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정된 반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①신청 반 ②신청자, 연락처 ③신청 이유 ④지면을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 간략한 계획

※맏칸년맏반의 구성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반이 자유롭게 내용을 기획해도 됩니다.

[신청/ 제준호와 진주중앙고 1학년7반 친구들]

[맏칸년맏반]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2반편

솔직히 인싸만 모였따!! 린정?? 암현이라 적고 2학년 2반이라 읽는다!



구바의 2020년, 2학년 반들 중 제일 최고라 자부한다. 수업시간, 쉬는시간 가릴 것 없이 항상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단합력이 너무나 좋고 반 친구들 그 누구하나 나무랄데가 없는 반이다. 코로나로 인해 수학여행도 못갔지만 지난 할로윈데이 때는 반 친구들이 다같이 분장을 하고 전체 사진을 찍었다. 남은 시간은 우리 추억 많이 쌓자!! 사랑한다 우리 2반.

우리반 담임 권민정 선생님



삼현의 2학년 한국사 담당이시자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다. 항상 말투가 나긋나긋하시며 잘 웃으신다. 현실감 없는 큰 눈을 가지고 계셔서 한번씩 보면 너무 신기하다.ㅎㅎ 인싸반을 담당하시느라 힘드시는 때도 있으실텐데 우리 반을 항상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여...종례 좀 빨리 마쳐주세요!! 사랑해요^^ㅎㅎ

이상형 & 미래 남편에게

이름	이상형	나의 한마디
강민선	잘생긴 남자	@miiiiin_o3
강성영	매너 좋은 사람	ㅂㄱㅈㄷ
강세미	영진♥	영진아 사랑해
김단우	코드 잘맞는 사람	@danwoo_18
김미진	상견례 프리패스 상	MBTI - INFJ
김영현	귀엽고 재밌는 연상	보고 싶어
박미란	풍각지 씹이면 끝	알아서 연락해
박민정	떡대	근육
박시현	점층	해안 어서오고
방서연	웃는게 예쁜사람	@seo_yeun
석다연	귀여운 사람	갈끔하자
송민경	부승관	ㅎㅇ
원희서	애교 많고 다정한 사람	썩썩 커라잉ㅋㅋ
유가원	키 크고 손 큰 양아치상	@gawon_you DM해줘
이세은	내가 우선인 남자	@senni_03
이수빈	외국어 잘하는 착한 사람	나랑 속구 보러가자~
이현지	무쌍 매력남	매롱♥
이호연	X	살아는 있니?
임유빈	손 크고 보조개 있는 남자	@yubin_0417
전수진	영앤리치	평생동안 날 웃게 만들어줘
정서연	웃는게 이쁜 남자	행복하게 잘 살자
조유솔	배울점이 많은 사람.	언젠간 만나겠지!
최시은	웃는 모습이 예쁜 남자	교복 입은 모습도 좋아해줘
하지민	웃는게 예쁜 톨앤핸섬 공군	부대 앞에서 봐
허수정	보조개가 있고 귀여운 남자	어디쯤이야?
허윤지	통글이 안경.댄디한 남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반 인물사전



유가원:우리 가원은요^^ 우리반 반장입니다. 항상 웃고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다.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한다. 막막 체육시간도 열정적이다. 우리 가원은 그냥 찐 착하다.



하지민:우리반 부반장이자 엘르 차장이다. 이목구비가 제일 뚜렷하고 눈은 정말 큰데 머리는 너무 작다. 생긴 것과 달리 게그게이면서 달리기1등. 태권도3단. 못하는 운동이 없는 이쁘고 멋진 친구다.



강민선:긴 머리카락을 돌돌만 뽕머리와 통그리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다. 걸크러쉬 그 자체이며 투덜대면서 썰렁한 건 다 챙겨주는 츤데레다. 츤데레에 걸맞지 않는 풍부한 감수성도 장착했다. 고냥 귀엽다.



이세은: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온 소녀다. 흥분할 때 사투리를 쓰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 친화력이 좋고 친구들을 잘 챙겨주며 애교가 과한편이다. 게임을 좋아해서 늘 같이 게임 할 동무를 찾는다.



송민경:세븐틴 팬이며 귀여운 인상을 가진 친구다. 우쿨렐레를 연주할 수있는 이 시대의 멋녀이고 친구들한테 장난을 많이 친다. 수업시간에 뒤돌아보면 조용히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방서연:순수한 얼굴과 꼭맞는 귀여운 목소리를 가져 욕을 쓰면 이상할 것 같다. 백치미가 매력적이고 재채기소리를 들으면 다들 반한다. 눈 밑의 점이 매력적이지만 선택장애가 심하다.



정서연:숏컷과 통글이인 경을 할때같이 소화하는 친구다. 반에서 항상 윤지랑 붙어다니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재밌고 하이텐션을 높내는 성격을 가졌고 검정고무신 기영이 상대모사를 잘한다.



허윤지:우리반 지각1등. 김고은을 닮았다. 어른스럽지만 한번씩 아이같은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다. 은근 애교가 많고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음색으로 노래를 정말 잘한다. 팔색조. 필통기자 대표로 리더쉽과 책임감까지 겸비한 멋진친구다.



최시은:수업시간에 모두에게 재미를 주는 우리반 분위기메이커를 맡고 있다. 누구와도 친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 진국이다. 수업시간에도 열정적인만큼 공부도 잘한다. 옆에 있으면 항상 기분 좋게 만드는 신기한 아이다.



원희서:키 크고 늘씬한 시원시원한 기러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선 그녀만 소화할 수 있는 커스텀 안경을 쓴다. 항상 귀여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반 친구 모두가 희서를 좋아할만큼 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박시현:파강이라는 별명을 보유. 게임을 중얼루 좋아하는 베그,어몽어스, 카트 광이다. 게임 유튜브 해안을 좋아하고 매일 아바라(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달고 산다. 시원시원한 성격이며 귀엽고 장난기가 많아서 인기가 많다.



김단우:혼자 사부작 사부작 거리며 큰눈에 도량도량한 얼굴의 소유자. 작은 체구라곤 믿기지 않는 하이텐션을 품고있다. 우리반 까탈레나를 알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루시퍼)매력을 가졌다.



이현지: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항상 잘 웃어주고 눈웃음이 참 이쁘다. 리블리 리액션, 상큼한 외모가 빛나는 그림을 잘그리는 멋진 친구이다. 쉬는 시간에 잠을 잘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김영현:매일 아침 학교 오기가 바쁜 친구다. 엘르의 해인씨 부원이며 정갈한 눈썹과 질끈 묶은 머리, 복숭아 같은 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상한 웃음 포인트를 가졌으며 웃으면서 열심히 어깨를 치는게 일상이다.



허수정:통글통글한 이미지가 친구를 끌어들이고 성격도 발랄하고 유쾌하다. 반에서 영현이와 자주 붙어다니며 장난을 많이 친다. 수업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려곤 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엽다.



김미진:재능과 끼가 넘친다. 본인파셀 ㅎㅎ 반에서 미술로 한 획을 긋는 친구이다. 평소 착하고 친구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지만 한번씩 이상한 무리수수들. 평소 웨이브로 학교 곳곳을 다닐 정도로 출세 관심이 많다.(무리수)



조유솔:삼현여고 심화반 인간쯤 명석한 두뇌와 말솜씨를 가졌다. 모르는 문제를 들고가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착한 마음까지 가진 완벽한 친구다. 웃는 모습이 사람을 무장해제 시키는 매력을 지녔다.



임유빈:도도하고 시크한 외모와 달리 도량도량한 목소리와 귀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화려한 웃이 잘 어울리며 활발하여 반친구들과 잘어울리는 친구다. 수업시간에 항상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박미란:베이킹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파티시얼을 꿈꾼다. 할로윈 때 손가락 쿠키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김칫선물을 나누어 준 착한 친구다. 미란이 주변에 있으면 간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신기한 광경을 구경할 수있다.

[취재/허윤지
(삼현여고2)기자]

[특집-19금 토크] 교복 입고 콘돔 사러 가다

돌출형 콘돔은 안돼? 포털에서 콘돔은 아직도 청소년 금지 단어

19

이번 19금 토크에서는 필통기자단이 직접 콘돔을 구입해 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것은 모두 19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사실 성관계를 19세부터 할 수 있거나 19세 이하가 임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진 않는다. 당연히 피임도구인 콘돔의 구입 또한 19금이 될 수 없다. 과연 청소년들의 콘돔 구입은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직접 구매에 나서는 기자단의 마음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다.

18% 콘돔 구매해 봤다. 70% 사용법 안다?

언젠가 콘돔을 사용하게 될 남학생들에게 물어 봤다. 콘돔을 사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중앙고, 사대부고 남학생 40명) 콘돔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0명중 7명, 18%였다. 대부분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실제 성관계 때문에 콘돔을 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콘돔의 사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 28명, 70% 학생들이 '잘 안다.'고 답해주었는데 아마도 학교 성교육시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 학생들이 여전히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도 조금은 의외였다.



필통기자단 콘돔 사러 출동하다

김현도 기자(진주고2)

① 구매장소: 시외버스터미널 앞 GS25

Q. 학생들도 콘돔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네. 특수형 콘돔만 아니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아야.

점원 분께 처음부터 학생임을 밝혔음에도 콘돔을 사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특수형 콘돔만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었다. 다만 점원 분께서 특수형 콘돔의 종류까지는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하는 다소 웃긴 상황이 발생했다.

편의점 앞에서 계속 서성이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하필 콘돔이 계산대 옆에 비치되어 있어서 구매하기 민망했다. 참고 고르려는데 점원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눈치가 보였고 어떤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콘돔 구입 후 다시 생각해 보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다. 학생의 콘돔 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콘돔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배재현 기자(사대부고2)

① 구매장소: 반도병원 옆 '주차장 약국'

Q. 학생이더라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A. 학생한테는 못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님은 내가 고등학생인줄 모르고 평범하게 대했다. 하지만 약사님은 학생인 것을 알고 '학생한테는 판매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며 당황했다. 진열된 것이 안보여 약사에게 '콘돔 어디 있냐요?'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콘돔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약사 가족 중 한 분이 콘돔에 돌기가 없으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해줘서 구매가 가능했다.

콘돔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이 7,000원이고 나머지는 10,000원이 넘어갔다. 학생들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꽤 비쌌다. 약사님은 콘돔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셨다. 오히려 학생들이 미성년자도 콘돔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판매자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었다.

조예은 기자(삼현여고2)

① 구매장소: GS25 가좌중앙점

취재하기 위한 것이지만 콘돔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너무 떨렸다. 원이 말을 건네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 부끄럽고 민망하고 왜 죄짓는 기분이 드는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판매직원 분이 전화를 하고 있어서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격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과거 계산하듯 자연스럽게 계산 해주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대학교 앞이라 그런지 매장에 진열된 콘돔이 많이 팔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성관계가 불법이 아니듯 분명 콘돔 구매도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콘돔이 더 필수적인 것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절실히 느꼈다.

서이현 기자(진주고2)

① 구매장소: 진주 평안점 GS25

Q. 학생이 콘돔 구매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판매코너 근처에서 진열대를 보고 있으니 알바 점원이 계속 쳐다봤고 몇 번 눈이 마주쳤다.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질문을 했을 때도 별로 탐탁치 않아하는 표정이 읽혔다.

취재였지만 편의점 앞에서만 10분 넘게 고민을 했었다. 구매할 때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너무 부끄러웠다. 점원

온라인상에서 콘돔은 청소년 금지 단어!

청소년들이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구입을 원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당연히 온라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절차가 청소년들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공인인증서가 있는 것도, 계좌도 있어야 하고 송금도 그리 간단치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나 홈쇼핑사이트는 피임도구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구입자체를 19금으로 막아 놓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실제 '콘돔'은 일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19금으로 청소년에게는 실제



또한 응대하는 말투나 표정이 호의적이진 않았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점원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다. 콘돔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와 달라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했었다.

진서영 기자(삼현여고2)

① 구매장소: 세븐일레븐 이현점

GS25 진주 이현점

세븐일레븐 이현점에 들어서 콘돔 판매를 물으니 직원은 단호하게 학생은 안 된다고 했다. 매장 안에서 콘돔을 고르고 있었는데 직원이 갑자기 판매대까지 나와서 찾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찾는 것이 없다고 말해도 계속 우리를 지켜봤고 나갈 땐 혹시 몰래 주머니에 콘돔을 넣진 않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듯 했다. 직원은 왜 콘돔은 학생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을까?

인근 GS25 이현점으로 갔다. 이번엔 따로 묻지 않고 콘돔 진열대에서 골라 계산대까지 가져갔다. 그러자 점원이 물었다.

Q. 혹시 몇 살이세요?

A. 저 학생인데 혹시 못사나요?

Q. 네, 저 팔면 경찰서 갑니다.

학생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봤지만 판매가 안 된다는 답변이었다.

콘돔을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른들의 시선도 걱정되고 조금 부끄러웠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판매가 안돼서 놀랐다. 이해가 안 갔지만 한 편으로는 구입하고자 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피임도구 또한 금지 되어있다. 결국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청소년에게 돌출형 콘돔 판매가 불법인 이유?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는 건 합법이다. 다만,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반 콘돔이나 초박형 콘돔이 아닌 '돌출형'이나 '링형' 같은 특수 콘돔을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왜 일반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놓고, 특수콘돔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걸까?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결정 고시에서 특수 콘돔은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로 규정돼 있다. '성적 자극 감각에만 탐닉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 '여성 성기에 자극을 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성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판매 금지 이유를 밝혔다.

안서진 기자(진주여고2)

① 구매장소: 이마트24 이현점

GS25 이현오거리점

이마트24에서 점원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해 주었다. 점원은 알바 대학생처럼 보였는데 학생이 콘돔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도 귀찮아하며 '상관없다' 고만 했다.

GS25 편의점도 아무렇지 않게 초고속으로 계산해 주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밝히자 점원은 대학생인줄 알았더니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고 계산을 취소했다.

부끄러운 마음에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취재에 나섰다. 그래서인지 아무 의심없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산을 해 주었다. 진서영 기자처럼 너무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고 구매한다면 결과가 좀 달랐을 것 같다. 콘돔은 정상적인 피임도구일 뿐인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매를 못하게 하거나 기분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변화가 필요할 듯 했다.

정보경 기자(진주중앙고2)

① 구매장소: 하대동 선학사거리 세븐일레븐

콘돔을 내려 놓자 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다. 콘돔을 본 적은 있지만 사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점원의 예상 밖 시니컬한 응대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가다보니 교복 차림이었음에도 알바생의 태도는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나 스스로 선입견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통편집국]

[필통실험실] 겨울철 필수품 립밤 5종 비교분석

내 입술은 소중한~ 여러분은 립밤 뭐 쓰세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약국과 화장품가게에서 불티나게 판매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보호해주는 립밤이다. 추운 날씨와 건조한 바람으로 트고 갈라지는 입술을 보호해주는 립밤은 학생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겨울철 필수품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립밤이 판매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장만한 립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습력은 어떤 립밤이 좋은지, 가성비는 어느 것이 최고일지 등을 두고 소위 결정장애에 놓인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필통실험실>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대표적인 립밤을 5종을 구입하여 가격, 용량, 색깔, 기름기, 성분 등을 비교해 보았다.

립밤 5종 비교

상품명	히말라야 립밤 오리지널	니베아 립케어모이스처	버즈비 비즈왁스	카맥스 모이스처라이징	바세린 립테라피 오리지널
용량	10g	4.8g	4.25g	10g	4.8g
가격	3,500원	3,900원	4,900원	4,000원	3,400원
제조사	히말라야 제약회사	바이어스도르프 코리아	버즈비인크	Carma Laboratories	유니레버코리아
주성분	당근씨오일, 피마자오일, 맥아오일	알로에베라, 파자마오일 등	비즈왁스, 코코넛아자오일, 해바라기씨오일 등	페트롤라툼, 라놀린, 카카오씨버터, 미네랄오일 등	오틸도데칸올, 마이크로프리스탈린왁스, 피마자오일 등
형태	튜브형	막대형	막대형	튜브형	막대형
향기	허브향	바닐라버터향	페퍼민트향	체리향	무향
원산지	인도	한국	미국	미국	한국

필통기자들의 사용후기

히말라야 립밤(오리지널)

촉촉함 ★★★★★.5

끈적함 ★★

바르고 나서의 느낌:

* 미끈미끈한 기름을 바른 느낌. * 허브향이 좋았다. * 부드럽다. * 시원달달하다. * 물 같다.



카맥스 모이스처라이징 립밤

촉촉함 ★★.5

끈적함 ★★★

바르고 나서의 느낌:

* 입술이 시원하다. * 알싸한 느낌이다. * 부드럽다.



니베아 립케어모이스처

촉촉함 ★★.5

끈적함 ★★

바르고 나서의 느낌:

* 입술에 흡수되지 않는 느낌 * 부드럽다. * 가장 무난하고 편하다. * 그저 그렇다. * 좋은 느낌.



바세린 립테라피 오리지널

촉촉함 ★★★

끈적함 ★★★★★.5

바르고 나서의 느낌:

* 자기전 발라야 할 정도로 끈적하다. * 부드럽다. * 미끄럽다. * 생각보다 끈적했다.



버즈비 비즈왁스 립밤

촉촉함 ★★.5

끈적함 ★★

바르고 나서의 느낌:

* 보들보들하다. * 살짝 흡수가 잘 안되는 느낌이지만 촉촉하다.



촉촉함 평가:

히말라야>바세린>니베아,버즈비,카맥스

끈적함 평가:

바세린>카맥스>히말라야,니베아,버즈비

학생들은 용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비싼 립밤을 자주 사서 쓰지 못한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립밤들도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입술이 건조해도 '가지러 가기 귀찮아 그냥 있지 뭐!'라고 생각

갈기도 다르기도? 무슨 차이?



거친 입술을 다스리는 자, 립밤! (lip balm)

립밤은 입술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르는 연고라고 사전에 나온답니다. 약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친 입술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립밤입니다. 립밤의 원초적인 목적은 튼 입술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입술이 트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에 있습니다.

발색을 원하는 자, 틴트!

틴트라는 말이 여자들에게는 아주아주 익숙한데요. 틴트는 립스틱에서 색상만 쏙 빼 액체 형태의 립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빛나는 입술을 탐하는 자, 립글로스!

립 글로스는 발색이나 보습보다도 빛나는 입술, 윤기에 중점을 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립스틱이나 틴트 못지않은 발색력을 자랑하는 립글로스가 나오고 있어 립글로스 하나만으로 윤기와 색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립 메이크업의 원조, 립스틱

입술에는 립스틱이라는 생각? 엄마도, 엄마의 엄마도 입술에는 립스틱을 바르셨으니까요. 립 메이크업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립스틱은 여자들이 화장할 때 입술에 바르는 막대모양의 연지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순간, 입술에 각질 축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다양한 립밤들중 자신이 선호하는 립밤의 형태를 고르고 자신의 피부와 입술의 조건을 고려해 적절한 립밤을 찾았으면 한다. 겨울철 쉽게 트기도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갈라진 입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다. 건강을 위해서도 또 외모를 가꾸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립밤은 남,여학생 구분없이 꼭 필요한 필수품이 아닐까 한다. 이번 [필통실험실]의 결과를 고려해 추운 날씨로부터 입술을 지켜줄 립밤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청소년 화장, 피부를 지키는 수칙을 알아봅시다!



요즘은 화장을 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색조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입니다. 아직 경제력이 없는 십대들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싸고 저렴한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잘못된 뷰티습관으로 어린 피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트러블의 지름길!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뷰티습관

한때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것이 유행

하기도 했었는데, 검증되지 않은 학용품을 함부로 눈 화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막염과 같은 염증이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 합니다. 딱풀로 쌍꺼풀을 만드는 일도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뷰티 습관 중 하나입니다. 소독되지 않은 비위생적인 상태의 딱풀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다보면 피부염, 각막염, 결막염, 시력저하와 눈가의 노화를 빨리 일으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나 샤프로 볼을 찢어 보조개를 만드는 행위도 자칫 잘못하다간 상처를 내거나,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십대들이 즐겨 착용하는 서클렌즈의 경우 착색제가 렌즈표면의 미세한 구멍을 막아 일반 소프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장시간 사용을 피해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친구들끼리 서클렌즈를 돌려가며 끼는 경우가 있는데 안과 전문의들은 이같은 행위가 정말 위험한 일이라 경

고하고 있습니다.

세 살 피부, 여든까지! 건강한 피부를 위해 십대시절부터 필요한 뷰티수칙

일찍 시작한 색조 화장은 피부 착색과 손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메이크업을 자제하는 대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십대시절부터 꼭 지켜야 할 뷰티수칙들이 있습니다.

▶ 꼼꼼한 세안으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세요.

피지 분비가 활발한 10대 청소년들은 아침저녁 꼼꼼한 세안을 통해 청결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세정효과로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일반비누보다는 순한 성분의 천연비누나 거품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품은 10대 피부를 위한 전용 제품으로 사용하세요.

유분기가 많고 여드름이 생기는 사춘기 피부는 예민해 질 수 있어 성인 화장품보다는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 주고 번들거림없이 촉촉하게 가꿔 줄 수 있는 10대 전용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 화장품 성분표기를 확인하고 자극적인 성분이 든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공 향료 및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벤, 벤조페논, 살리실산, 트리클로산 등 위험한 유해성분을 숙지하고 화장품 구입 시 전 성분 표기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보습제품을 사용하여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세안 후 스킨과 로션, 에센스 등으로 기초 케어를 한 다음, 수분 크림으로 피부의 수분을 채워 주고, 평소 물을 자주 마시며 피부 보습에 신경 씁니다.

[맏칸년맏반-신청] 진주고등학교 1학년2반

진고의 휴게소같은 힐링스팟!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는 1학년 2반입니다



우리 반은 단합력만 아니라 친구들 간 케미가 잘 맞아 분위가 자체가 다른 클래스를 보여준다. 가끔씩 선생님들께서 반 전체가 너무 활발하다고 걱정 하신 건정을 하신다. 우리 반은 거의 진고의 힐링 스팟이다. 휴게소처럼 다른 반 친구들조차 시시때때로 들러 쉬고 떠드는 반이다. 언제나 떠들썩한 1학년 2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진고 최고의 반이다.

우리반 담임 이연정 선생님

영어 담당 선생님이자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시지만 귀여운 모습에 학생들엔 '귀요미'라고 불리신다. 가끔 선생님의 고민을 얘기 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장난도 잘 받아주셔서 친구같이 편안하고 좋은 선생님이다. 그리고 학급 친구들 한명 한명 진로계획까지 도와주시는 이 시대 진정한 선생님이다.

나, ... 은 겨울 방학 전 상담까지.

- ▶ 사연에 잘 사람이 내신 4.5 받아주는 여대 명함도 못 내린다. 결산에 해당해 잘 거 아니면 내신 물리자.
- ▶ 1학기 어록, 2학기 정관 4 ~ 3.8은 받아. 그때야 실습 국선이 드러난다.
- ▶ 기말고사 전, 지망고사 끝난 후, 교육관련/역사, 사회관련 독해 해서 독해기록장 등록하자.

적과 같은 노란색 응원글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반 모든 학생들의 진로를 고민한 선생님의 응원이 담긴 희망 메세지다.

특별한 에피소드

우리 반 친구들만 가진 노란카드가 있다. 선생님의 우리 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카드로 한 명도 빠짐없이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각각 부

멋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강동현: 운동을 아주 좋아하고 활발하며 재밌는 성격이다. 배려심이 많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명석이란 시골에 살아서 시골소년이라는 별명. 물을 잘 못하지만 자칭 진주고 패이커라고 우긴다. 축구를 잘해 축구도시라고도 한다.



김무원: 게임을 아주 좋아하고 차분한 성격이다. 마음이 넓어 화가 없다. 상대방 감정 이해를 잘해주는 편. 딱히 별명은 없고 혹시 몰 미드나 원딜 잘한다면 >>무쇠불리 친구 정글 서툰 갑니다. 헌티어 플레4 잠재력 그랜드 마스터.



김예담: 불량부 1학년 부장을 맡고 있다. 학기초 창가에 기대서 맨날 잠을 자 공부 못하는 양아치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반 3등이다. 또 반전은 노래방 간 친구들은 다 인정하는 노래잘 하는 실력자다.(포스트맨 사운드가 있어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



김태현: 아주 특별한 별명의 소유자. 매직을 했는데 머리가 망해서 깃파 같다고 해서 깃파라는 별명이 생겼다. 깃파같은 사람 만나면 인사해주세요. 노래 잘하는 여자만 보면 금사빠.



박찬민: 반장을 맡고 있다. 반장 치곤 장난기가 많아 하루종일 벅통진과 최민준 길구는 맛으로 학교를 다니는 중이다. 벅통진과 함께 외모 담당(?)을 하고 있다. 과학시간만큼은 눈이 초롱초롱 ~ 과학바라기다. 요즘 코로나가 무서워 헬스를 못 가 사무룩하다.



박현빈: 특별한 재능. 하루 종일 잠만 자 선생님들이 깨우다가 지친다. 문과계열 공부를 좋아하지만 성적은 나쁘다. 아토피 때문에 겨울, 여름을 무지 싫어한다.



박현제: 취, 재, 괴, 헛 등등 쥐와 관련된 다양한 별명으로 불린다. 키가 그렇게 작진 않지만 귀여운 미키 마우스를 달았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귀엽다는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자신은 딱히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백동진: 문과 계열 선생님을 꿈꾼다. 부반장으로써 반장과 함께 반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가끔 '하는 게 뭐냐' 라는 소리를 듣곤 한다. 여친이 있어 친구들에게 연애 상담을 해주곤 한다. 박찬민과 함께 심형제 집안으로 저출산 문제에 큰소리를 친다.



이석희: 생긴 외모와 달리 순수하고 착한 친구다. 매일 까불고 반 분위기를 뒤흔트릴 때면 진지한 면도 있다. 애가 조용하면 반 분위기도 조용. 벅통진과 웬수 사이지만 알고 보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3반 생을 짝사랑중이다. 담임쌤과 매일 투투투투투투.



이진욱: 얼굴이 톱글툭글. 순진하게 생겨 김지라는 별명 생겼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건망증이 심해 친구들 말을 많이 까먹는다. 의외로 낯을 많이 가려서 속스러움을 잘 탄다.



최민준: 음악적 취향이 확실하다. 딱 90년대에 엄춘 플레이리스트의 소유자다. 다크서클이 없는 날이 없다. 사집 읽기와 헬로키티 건담을 좋아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하재민: 본명은 하재인 별명은 하재웅. 말 그대로 곰이라는 별명이다. 곰의 아우라가 있다고 한다. 돈 해 보이지만 관찰력이 좋고 섬세하다. 또 어릴 땐 투박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성격이 곰처럼 거친 건 아니다.(약간 푸근한 편다가 어울릴지도?)

나는 누구인가? 이상형?

이름	나는 누구인가?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동현	명석 축구 짱	이쁘고 돈, 몸매, 성격 되는	짜스!!!
김무원	매력 넘치는 사나이	게임하는 쿼트한 여자	임 기모링
김영민	운동하는 애	나랑 잘 통하는 사람	1-2반 아프지말고 행복하자
김예담	1-2반 노래통	조미연 같은 여자	최민준 말로 @dam_damn
김정빈	나는 착한 바보다	착하고 귀여운 사람	더 재밌게 1학년 보내자!
김태현	학생이다	노래 잘하는 여자	최민준 말로
박찬민	초특급 미남	불살 많은 초특급 미녀	벅통진 공부하는 척마라@airp.ds
박현빈	한국사 좋아하는 점만보	오마이걸 비니	오마이걸 흥해라
박현제	친해지면 좋은 사람	키 작고 귀여운 여자	열심히 공부하자
백동진	미래 선생님	안경 쓴 앞머리 있는 여자	정경아 사랑해♥
서관우	맛있는 안경잡이	매운 거 좋아하지만 못 먹는	보고싶다
신지윤	맛있는 안경잡이2	취향이 비슷한 사람	언제나 즐기자
양현욱	크롱처럼 생긴 사람	키 작고 강아지상	2학년 때는 공부 열심히
이규학	충실한 사람	한 겨울 아이스크림 먹는	규카츠 먹고싶다
이동은	착하고 매너있는 사람	마음 착하고 잘 웃는	우리 우정은 영원하자 핏팅!
이석희	이서키다	이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경아 내게 @sk_dylop
이진욱	명청이	말 잘 통하는 사람	항상 힘내자
조은	잠꾸러기	요리 잘하는 여자	다들 코로나 조심해
최민준	판다	미스치프걸	김예담 말로 @jvnwdrind
하재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배려심 깊은 사람	진고 1-2 우정 영원히
홍지승	지역방송(시끄러움)	여자	재밌게 살자
황호준	착하고 편한 사람	현모양처	국밥 땡기네
이주영	엄청 성공할 축구선수	♥이루비♥	한번 인생 하고싶은 대로



홍지승: 항상 밝고 시끄럽지만 점심시간의 대부분을 잠을 잘 정도로 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지만 둘 다 잘하지는 못한다. 우리반에서 큰 키를 담당하고 있지만 큰 키로 잘하는 것은 그다지 없다.



황호준: 우리 반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운동을 잘하진 못한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중에 국밥을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포켓몬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푸린이다. 지갑에까지 넣고 다니는 덕후.



이주영: 진고 축구부로 1학년 2반에 속해 있다. 당연히 프로선수를 꿈꾸고 있다. 공부는 솔직히 못한다. 대신 반에서 분위기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다. 취미는 컴퓨터 놀이이며 반에서 1등이다. 장난기가 많아서 가끔 혼나기도 한다.



[맏칸년맏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반을 필통을 통해 알리고 자랑하고 싶다면 신청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작성해 필통 공식 메일 feelong1318@daum.net 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feelong1318로 보내 주세요. 남, 여학교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정된 반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①신청 반 ②신청자, 연락처 ③신청 이유 ④지면을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 간략한 계획

*맏칸년맏반의 구성 내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반이 자유롭게 내용을 기획해도 됩니다.

[신청/ 박찬민과 진주고 1학년2반 친구들]

[맏칸년맏반-신청] 동명고등학교 2학년3반편

공부빼고 뭐든 다 잘한다! 동명고 최고의 인싸 반, 2학년3반이다



동명고에서 공부 빼고 다 잘하는 반을 고르라면 당연히 2학년 3반이다. 행복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반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거울이 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챙겨주는 분위기가 하나씩 정말 좋다. 달빛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반의 조항은 다른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우리 반 특유의 분위기인 친밀함은 어떤 반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한다. 그 이유는 동명고의 인싸 반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 발표 하나를 해도 거대한 반응은 거의 사냥감 급이다. 그리고 달빛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뒤에서 두들겨라고 결국은 다 듣고 행동하는 착한 친구들이다. 결론은 동명고 최고의 인싸 반인 바로 2학년 3반이라는 말이다. 우리 반 보스 태극이 실화

우리반 담임 조기만 선생님



조박사라 불리는 유명 골프출신 선생님입니다. 키가 185cm 이상이라 포스가 장난 아니네요. 항상 골프웨어와 정장을 자주 입고 헤어스틸도 신장 쓰는 아주 멋쟁이 선생님입니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친구들을 모두 바르게 인도해주시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가끔 귀여운 면도 보이시는 보전 매력의 소유자, 담임선생님으로 완벽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친구들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도규	항상 나 좋아해 주는 사람	불연증 연락해라 재워준다.
강동희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	평생 설거지는 내가 한다. @ heee_dong713
강민창	서울말 쓰는 여자	BigBromin@gmail.com
강유찬	고양이	롤1대1 식발행 연락
강현중	누나 같은 여자	좋은 만남 24시대기중.
구성준	아이린	010-3073-2343
김원준	나를 휘집을 수 있는 상 여자	다이 켄 사람
김태경	눈 크고 착한 여자	(여자우대, 남자입벤)
김현두	글루글루	010-8507-4238
류지범	친구처럼 같이 있을 때 편안 한 사람	♥
박창우	돈 많은 여자	도통초, 동명중 친구들 연락해라
박희민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여자	돈만 많으면 밥은 내가 한다.
설진우	나랑 잘 놀아주는 여자	-
손정우	강아지상	@jfwisdn
송현성	담배 안 피는 여자	파이팅!
우완서	착한 여자	010-3213-3049
이태균	없다.	복싱 좀 배워서 두 방에 재운다. 연락해라
정정훈	칼 단발 초미녀	어, 나 진주 이태균
조승현	160이하인 눈 큰 고양이 상	@jjeoonngghun
최민혁	너	밤의 왕자 조승현이다
최부근	착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여자	내 누군지 아니?
하수민	청순, 섹시	양아치 선도 하러간다 조심해라

주목! 우리 반의 인싸들



강도규: 모범적인 반장이자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엄청난 스타일이지만 남 다른 피지컬로 자기 권리를 잘하는 모습은 남자가 봐도 멋있다. 그런데 말투와 목소리는 또 귀엽다. 은근 허당끼가 있어 인간미가 넘친다.



강동희: 우리 반 인싸 헬창이다. 축구 부심, 창우와 서로 디스 하는 것을 즐긴다. 분위기 메이커 중 한 명으로 구릿빛 피부를 가졌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부색이 좀비 같다는 소리를 듣는 매력 넘치는 친구다. 민창이와 매일 투닥거리지만 말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다.



강민창: 자랑스런 동명고 문과 1등이다. 학교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쓰는 괴물. 독서를 많이 하여 어휘력이 남다르다. 말빨도 좋아 통쾌카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반 얼굴 뺨까를 알고 있어 아무도 잘 건들지 못하는 우리 반 대장이다.



강현중: 별명이 제일 많은 재미있는 친구다. 국어선생님의 모아이부터 디그다까지 눈웃음(눈웃음)이 포인트인 귀여운 친구. 그리고 오반을 정말 많이 달았다. 롤 1800만 기록을 가진 유명 게임중독인 친구이기도 하다. 또 아침마다 아슬아슬하게 등교를 한다.



김원준: 유일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실기에 매진하는 미용 지망생 친구다. 실기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항상 봐주고 돌아온다. (이제는 볼줄지도) 평상시에 옷에 관심이 많은 옷 잘 입는 패파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반 몇 없는 톱질남 중 한 명.



김현두: 부반장을 타고 있는 톱질한 친구다. 부반장으로써의 존재감은 그닥^^ 꼼돌이 푸를 달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지금 연애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오래 연애 중이다. 마음이 착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성격. 어디 내놔도 걱정이 없다.



류지범: 평상시에 잠이 많은데 외아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다. 까까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현두가 잘 애용한다. 우리 반 데이터담당을 맡고 있어 시험 끝난 후에 가장 많이 찾는 친구. 착해서 거절도 못하고 거의 무제한 데이터 지원 해준다.



박창우: 서열골피로 인창이의 파해자 2다. 축구 섹시라는 별칭을 좋아하고 축구 부심이 남다르다. 그래서 통화와 급이 다른 축구 실력을 가졌다. 지부한다. 매일 친구와 부근이에 시비 걸며 장난을 많이 치고, 평소 선을 조금 넘을 때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친구다.



설진우: 우리 반 몸짱 열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주 모범적이고 조용하다. 연애부터 공부까지 혼자서 할 거 다하는 친구.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고 여친이 좀 많다는 소문. 친구들의 시선과 놀림을 받는다. 행동이 초딩 같고 허당끼가 많아 귀여운 친구다.



송현성: 항상 등교를 압도적으로 1등 하는 친구다. 부지런함으로 공부하면 인창이도 이길 못 하다. 담배를 정말 싫어해서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은 친구다. 맨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 살압근이 뛰어나다. 맛있는 운동 자세를 자유자재로 하는 맨몸 운동의 대가다.



정정훈: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친구다. 잘생긴 비주얼로 발라드를 부를 것 같지만 노래방에 가면 랩만 하고 웃도 힘하게 입는 힘짱이다. 긴 머리가 매력적인 늑대 같은 스타일로 남자가 봐도 섹시하다. 테일즈런너를 즐겨하고 사랑해서 같이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조승현: 우리 반의 밀거조와 분위기 메이커를 맡는다. 수업 시간에 수면 바지를 입는 핵인싸. 스트릿 패션을 즐기고 거리를 휩쓰는 패파. 인생을 걱정 없이 살고 배우는 없다는 멋진 친구다. 특유의 귀여움과 진창스러움으로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최민혁: 귀여운 외모가 눈에 확 온다. 친구와 게임에서 지는 바람에 지금은 백백머리를 하고 있어 통자스님 느낌이다. 흐흐로 모자로 귀여움의 정도가 한 층 더 업 됐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입은 좀 거칠다. 부근이가 밍밍이라고 불러 한동안 밍밍이라 불렀다.



최부근: 학교의 자랑스런 부화장이자 장차 학교 회장을 노리는 인재다. 동명고 폭군인 태균이를 제지하고 타이틀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친구들을 가장 잘 챙기고 학교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자신에겐 소소한 순둥순둥한 스타일이다.



이태균: 반의 압도적인 최종보스다. 누구도 쉽게 건들 수 없다. 매일 싸움 신청을 받지만 이상하게 신청자가 없다. 동명고 폭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귀여운 외모를 가졌고 반 애들을 잘 챙겨준다. 생각도 깊고 주관이 뚜렷한 멋지고 자랑스러운 친구다.



우리 반 급훈

담임선생님 교직 생활의 영원한 급훈으로, 새 학기 시작할 때 정한 우리 반의 급훈,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비록 반 친구들의 의견 반영은 없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급훈이 되었다.

시험 문제 잦은 수정! 책임은 NO!

출제교사의 반복되는 시험문제 오류, 불이익은 학생들만의 몫

학생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숙명 같은 존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으로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생활중 하나다. 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4번 시험을 친다. 2번은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이고, 2번은 수능을 준비하는 모의고사 시험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내신시험을 칠 때면 항상 곤욕을 치른다. 시험지의 오타는 기본이고 문제 자체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재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시험 시간 중 문제 수정으로 교사들의 잦은 공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방송으로 또는 직접 교실에 찾아와 직접 문제를 수정한다. 고학년일 수록 시험에 있어서 1분 1초가 정말 귀한 시간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늘 준비한다. 또 학생들 간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적잖이 받는다. 교과서, 부교재, 보충 학습 등으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시험 당일 주변

환경에 의해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해 문제를 틀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진주 J고는 평균적으로 한 시험당 4번 정도의 문제 수정이 있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도 흔한 풍경이라고 한다. 애초에 문제를 잘못 낸 경우가 허다했고 객관적이지 못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 해설을 위해 교실 문을 거칠게 열고서는 '문제 푸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를 보십시오.' 하며 큰 소리로 문제 수정 공지를 한다.

학생들은 늘 당황스럽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시험지를 보며 문제를 풀던 흐름은 모두 끊긴다. 문제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또한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추가적인 시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시험 시간 손실은 학생 몫이 된다. 어쩌다 한 번의 문제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수 차례 문제 수정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다.

출제된 문제를 확인한 후 인쇄를 했겠지만 늘 있는 문제 수정, 문제의 답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되어 재시험을 치는 경우들은 명백히 출제자 잘못이고 그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도 불이익은 아무 힘 없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진다. 왜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 지지 않는지 학생들은 묻는다. 하지만 답변은 없고 똑같이 잘못을 반복한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시험이 끝난 후 문제의 오류로 인해 답이 바뀌는 경우다. 시험시간 문제를 푼 학생은 답이 틀리고 오히려 찍어서 얻어 걸려 문제를 맞게 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찍은 학생과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푼 학생이 출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시험 결과가 뒤 바뀐다면 이 얼



마나 불공평한 것인가? 특히 문제 하나에 등급이 달라지는 치열한 입시경쟁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내신 시험의 결과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의 노고도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만 시험때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한 달 또는 2주를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공정하게, 시험지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교사들은 오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문제 없는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취재/ 안서진(진주여고2)기자]

시내버스에는 왜 안전 벨트가 없을까?

한 해 시내버스 사고 5000여건, 편함보다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일까? 택시, 부모님의 차, 도보이용, 자전거 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버스다. 학생들의 일상에서 시내버스는 빼 놓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시내버스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안전벨트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전벨트가 없는 교통수단이 급급차와 시내버스다. 대체 왜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의 기준에 관한 규칙 27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그 예외가 바로 시내버스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의 평균 거리는 400~800m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짧은 구간, 교통 통제를 받으며 운행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적다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 해 평균 시내버스 사고만 5,000건에 달한다. 버스사고 사망자 10명중 6명이 시내버스 사고다. 그리고 연간 시내버스 사고 사상자가 1만 명에 이른다. 시내버스가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안전벨트가 없다는 것은 사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시내버스에도 사고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망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승객들은 늘 마주 한다. 위험과 사고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담당자의 답변은 어떨까? 교통과에서는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또 문의 앞뒤 좌석, 교통약자석, 임신부석 만이라도 안전 벨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답했다.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안전보다 편리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법조차 그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편리함보다 안전을 더 외치고 있다. 사고는 돌일킬 수 없다. 또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아닌가? 법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



고 행동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이제 우리는 편리함보다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

시내버스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라면 사고시 특히 위험한 좌석이라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있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제 안전벨트 없는 시내버스를 이상하게 바라봐야 한다. 하루빨리 시내버스에 맞게 설계된 안전벨트가 설치된 버스를 만나 뵈었으면 한다.

[취재/ 김선진(선명여고2)기자]

남고, 여고 왜 나누어져야만 하나

양성평등 시대, 남녀공학보다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

옛말에 '남여칠세부동석'이란 말이 있다. 유교의 옛 가르침에서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강해서 일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은 분리된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왜 남고, 여고를 나눈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진주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남녀공학보다 확연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있는 단성학교가 더 많다. 남녀공학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주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유교적 문화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학교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심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각 학교의 전통이 깊다 보니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또 한 이런 분위기는 신설학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 된다.

그렇다면 남고와 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J남고, J여고 학생들 각 100명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나누

어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77.8%,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2.2%로 조사됐다. 예상 밖으로 남녀공학이 아닌 현재의 성별로 분리된 학교를 더 선호하는 결과였다.

남녀공학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남녀가 같이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평소엔 남고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연애하는 애들도 많고 공부에 집중 못하고 성적이 떨어질 게 뻔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남녀공학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10대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하는 시기인데 성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성애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대학교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를 것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구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공학이 당연히 문제점이 더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막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 등등의 의견으로 갈렸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이미 양성평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강제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아닌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도 있다. 또 반면 남녀공학의 이성교



제 문제, 성적하락 등을 문제 삼아 남녀공학을 포기하려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든 변화에는 혼란이 따른다. 대학입시 공부만 보면 남, 여학생을 떼어 놓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모른다. 성적만 놓고 보면 이성교제가 일상이 되는 남녀공학은 선택해서는 안 될 교육 방법이 된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해서 교육하는 것이 옳바르고 훌륭한 선택일 수는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고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학업도 쫓길 수 있도록 하는 것. 함께 있기에 생기는 다양한 사고와 문제들을 단순히 남,여를 분리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함께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취재/ 서이현(진주고2)기자]

마킹 실수 한 번이 수능 부정행위인가?

반복되는 수능 4교시 0점 처리, 시스템의 문제에 피해는 수험생 몫

올해 수능이 끝났다. 이 한 번의 시험을 위해 수험생들은 말 그대로 피, 땀,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단 한 순간의 마킹실수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과목이 0점 처리가 된다면 어떨까? 매년 수능 4교시는 논란이 되었다. 올해만 봐도 부정행위 56명이 적발되었는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29명이다. 재작년 147명이 이를 위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6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유독 4교시에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여러 과목을 한 교시에 치러야 하는 시험 방식과 과목 통합형 답안지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수능 4교시는 한국사영역과 탐구영역 시험을 한꺼번에 치른다. 최대 3과목의 시험을 한 교시에 모두 치르지만, 각 과목의 시험 시간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과목별로 정해진 시험 시간을 지켜야 하고, 특정 과목의 시험 시간에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시험지를 보거나 풀이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한국사 시험

시간에 다른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문제를 보거나 푸는 행위, 또는 탐구영역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거나 마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전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응시규정과 달리 시험 응시 환경은 언제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최대 3과목을 치르는 4교시의 답안지가 단 한 장뿐이기 때문이다. 답안지가 과목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목의 시험 시간이 바뀌더라도 감독관은 답안지를 회수하지 않는다. 의도치 않은 실수가 문제다. 답안지를 착각했거나 실수로 마킹을 잘못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가끔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과목 순서를 어겨서 시험을 보거나, 자기도 모르게 시험지 2장을 책상 위에 올려 놓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실수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과목이 0점 처리된다면 오랜 기간 쏟았던 노력이 일순간 사라지는 것이니 불공정하다 항변할 만 하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교육당국은 단순한 실수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작업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역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능 4교시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단순한 실수 때문에 수능 전 과목이 0점 처리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0점 처리되는 과목을 해당 과목 하나로만 한정하고, 수험생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4교시 답안지를 과목별로 분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2022학년도 수능(현 고2 적용)부터 4교시 한국사 답안지와 탐구영역 2개만이라도 답안지를 분리할 계획



이라고 한다.

내년 전국 수능능력시험 날이 오기 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다. 수능이 수험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란 것을 안다면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게 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들은 오늘도 참고 견디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 행복을 위해,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언제까지 제도와 시스템의 잘못을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덮고 지나갈 수는 없다.

[취재/ 김수연(선명여고1)기자]

재활용률 22.7%, 분리수거 잘못하고 있다

분리수거하는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거 분리수거 해야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주 들어본 말이다. 색지 않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탓에 지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 지구 온난화 위기쯤은 이제 모르는 아이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개인이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분리수거, 즉 재활용 습관이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이제 상식이 되었고 생활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친숙한 재활용이 엉망진창이라면? 나름 잘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던 재활용이, 어쩌면 잘못된 방법이었다면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을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폐기 방식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한 모범국가'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연구진과 자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수치를 밝혀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 소각

되는 비율을 빼고,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경우만 계산했더니 재활용률이 22.7%에 그쳤다고 한다.

재활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선 택배로 받은 종이상자는 송장이나 테이프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없는 채로 배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식품류의 온라인 구입도 급증했는데 스티로폼 상자 역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부착된 상표는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아이스팩의 경우 내용물을 싱크대나 버전에 버리면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상품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완충재인 에어캡, 일명 '뽁뽁이'는 비닐류로 분류하고 과일 포장재는 스티로폼으로 배출해야 한다. 한 끼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종종 먹는 컵라면 용기는 오염됐으므로 재활용이 어려우니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오염된 일회용기는 재활용이 안 된다. 노트는 스프링 제거 후 종이로 배출하고 광고지, 전단지, 사진 등 코팅이 된 재질은 종이라 하더라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커피 전문점에서 포장 주문을 할 때 받게 되는 플라스틱 컵, 핫반 같은 즉석밥 그릇은 깨끗한 상태로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OTHER'로 분류되는 혼합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회용 마스크 역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우리 국민 1명당 매년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지 460개를 사용한다. 이 정도 양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기까지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24kg에 달하는데 국민 한 사람당 30년산 소나무를 매년 세 그루 반 이상 없애는 것과 같은 수치다.



솔직히 그냥 아무생각 분리수거만 다 잘하면 돼, 귀찮은데 아무렇게나 버려도 재활용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려왔었다. 분리수거를 한다면서 잘못을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환경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자제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탄소 중립'과 '제로 웨이스트(일회용품 안 쓰기)'가 시대적 키워드가 된 지금, 나부터 제대로 바꿔보자는 작은 구호에 응답해야 할 것 같다.

[취재/ 김태희(진주제일여고)기자]

학교 도서관에 대출 금지 도서는 왜?

만화와 잡지는 책이 아니라는 선입견은 이제 그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애용하고 자주 들르는 곳 중 하나가 도서관이다.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고 많은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또 매년 학생들의 신청을 받기도 하고 청소년 추천도서로 선정된 책들이 빈 책장을 채운다. 매일 학생들이 오고가며 책을 보기도 하고 정보를 얻는다. 때론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만은 아니다. 비치된 책들도 다양하다.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책에서 소설이나 에세이, 과학 서적이나 베스트셀러들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책장을 지나다보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책과 잡지들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도서관의 이용규칙이 있다. 도서관 책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출이 금지된 도서가 있다는 것이다. 19금 야한 책도 아닐 것인데 만화와 잡지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아예 대출이 금지되어 있거나 일부에 한해 대출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학교에서 유독 만화책과 잡지의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확인 결과 진주여고, 진양고, 선명여고, 진주기공 등은 만화책과 잡지 대출이 불가능하며,

명신고 등에서는 일부 정해진 책만 대출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신간 도서 신청시 학생들의 만화책 요구가 적지는 않지만 수준에 맞는 학습만화정도만 주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잡지와 만화는 한 사람이 장시간 독점하면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잡지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만화 같은 경우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이 되도록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실제 만화책을 대출했다가 책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학교 도서관이 있었다. 물론 만화책이나 잡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도서관에는 상태가 좋은 책이 더 많지만 상태가 불량한 책이 눈에 많이 띄게 된다. 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학생들이 더 자주 빌려간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다함께 보는 공공재산인 만큼 책을 깨끗이 다루는 문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요구 또한 중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잡지나 만화처럼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의 책도 적절하게 구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만화와 잡지 또한 책이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문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잡지나 만화를 통해 공부를 하고 지적 감성을 찾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손쉽게 책을 접하고 도서관을 가까이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만화나 잡지는 책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피라미드같은 존재라는 선입견은 이제 버려야 한다. 잡지와 만화는 금서가 아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정도의 잡지와 만화를 구비하면 된다. 학생들에게 대출 규칙을 잘 지키고 책이 깨끗한 상태로 반납될 수 있는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취재/ 김수원(진양고1)기자]

붕어빵
아자씨

[겨울엔 팔이 생각나/ 붕어빵 아자씨]

12월, 찬바람을 맞게 할
붕어빵 아자씨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붕어빵. 어묵, 떡볶이 등 대표적인 겨울 간식들을 갖춰 놓고 연신 뜨거운 화덕 앞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고소한 냄새로 손님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는 가게가 있다. 입구에는 붕어빵 틀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이 줄지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뜨거운 오뎅 국물속에 꼬지에 꼽힌 어묵들이 줄지어 있다. 어묵 옆에는 어묵의 베프 빨간 떡볶이! 여기가 바로 겨울 맛집 '붕어빵아자씨'다.

붕어빵 아자씨는 진주에 2곳. 산안동과 상봉동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운영하는 특별한 프랜차이즈(?) 가게다. 원조인 아버지가 먼저 산안동에 터를 잡고 운영하였는데 그 뒤에 아들이 뒤를 이어 상봉동에 분점을 내어서 일하고 있다.

- 붕어빵 반죽은 매일 저녁에 다음날 쓸 만큼의 양만 만들어 사용한다.
- 빵이 다른 곳보다 도톰하고 조각갈이 모양이 예쁘다.
- 400원에 1개, 1000원에 3개, 3000원 10개
-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대기시간은 랜덤
- 주의! 비닐봉지에 계속 넣고 있으면 눅눅해진다.
- 여름에는 눈꽃빙수를 판다.



[특집] 2020년 진주시 필통 맛집 지도

2020년 진주시

땡초김밥
본점

[진주가 원조인 별미, 땡초김밥]

매운맛 좀 볼래!! 산뜻한 봄바람, 땡초 향기와 함께



진주에선 9개 매장이 있다. 땡초김밥은 지난 2003년 본점인 진주 대안동을 시작으로 총 19개의 가맹점이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진주에는 땡초김밥 본점을 비롯 금산점, 하대점, 산안평거점, 옥봉점, 충무공동점 등 9개 매장에서 땡초김밥을 만날 수 있다. 땡초김밥은 16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통해 진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진주가 자랑하는 별미 음식이다.

영문
진사갈비
신안점

[무한으로 즐겨요~! 영문진사갈비를 가다]

양념갈비에 음료와 밥도 무한리필! 과연 그 맛은?



진주시 내에는 6개의 체인 매장이 있다. 평거점/금산점/신안점/주약점/초전점/혁신도시점이다. 영업 시간은 매일 12:00~23:00/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평일에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주말에는 없다고 한다. 무한리필이긴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 시간이 100분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평일에는 120분이다.

-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고기밥, 음료 포함)
- 성인 13500원 / 8-10세 8000원 / 5-7세 6000원
- 무한리필 이용시간 : 평일 120분/주말 100분
- *포장 불가(반려동물에게 준다고 해도 불가) *매장 내 모든 음식은 내부에서만 식사 가능

가마솥
팔칼국수

[겨울엔 팔이 생각나/ 가마솥 팔칼국수]

12월, 찬바람을 맞게 할 가마솥 팔칼국수



추운 겨울, 보가만 해도 따뜻해지는 느낌의 외판이다. 정겨운 간판에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가마솥이 함께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진주 평거동에 위치한 가마솥 팔칼국수다. 소금과 설탕, 통치미와 깍두기, 팔칼국수에 대단한 반찬이 필요 없지만 깍두기가 칼국수를 더 감칠맛 나게 한다. 추운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팔칼국수는 이제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듯 하다.

팔칼국수 6,000원/ 새싹팔죽 7,000원이다

[맛과 행복을 만든다는 망치공장]

이렇게 크고 맛있는 돈가스 먹어봤나 복쉬?
심쿵쿵 망치공장!

망치공장

[돈가스 전문점 1440수제이야기]

하루 1440분의 비밀
골목식당 돈파스가 이런 맛 아닐까요?

찰암동 미르치과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색 건물이 보인다. 벽면은 건물 내부가 잘 보이는 유리로 되어있어 바깥에서도 가게의 깔끔한 인테리어 구조를 볼 수 있다. 간판엔 1440이라는 숫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하루는 24시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

다. 여기서 판매되는 돈가스와 가라아게를 만드는 재료, 즉 고기를 하루 24시간 (1440분) 동안 숙성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1440 수제이야기라고 지었다고 한다.

-경남 진주시 강남로 189번길 24-1(☎ 055-755-1440)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마지막 주문은 9시 30분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1440
수제
이야기곰분이
곰창

[세상에 없던 곰창? 칠암동 곰분이 곰창]

세상에 없던 곰창을 선보이다?!
직화의 숯불향을
진주 곰분이 곰창에서 느껴봐!

진주에서도 수제 돈가스로 이름 난 가게들이 여럿 있다. 돈가스 맛집 명성이 자자한 평거동 망치공장. 위치는 평거동 엘크루, LH5단지 부근 먹자골목 쪽에 위치 해 있다. 평거동이 1호점이고 올해 초전동에 2호점도 오픈했다. (평거점-진주시 새들말로 56-5 1층/ 초전점-진주시 초북로20번길 8 1층)

○망치공장은 오전 11시30분 오픈하고 오후 8시에 마지막 주문을 받는다.

○오후 4시~5시까지는 브레이크타임.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

○각종 반찬들과 밥, 스프, 돈가스 소스를 직접 추가해서 덜어 먹을 수 있는 셀프 바.

○수제돈가스 11,000원, 판오밀 7,500원, 모밀냉면 8,000원, 비빔오밀 8,000원, 비빔판두 7,500원, 돌우동 8,000원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다.

필통 추천 맛집 지도

[겨울엔 팔이 생각나/ 수복빵집]

수복빵집

12월, 찬바람을 잊게 할 수복빵집



요즘 청소년들에게 마카롱이 있다면, 젊은 시절의 부모님에게도 '핫한 디저트'가 있었다. 바로 '편빵'이다. 80·90년대 학생들의 미팅 성지가 되기도 했던 '편빵', 특히 진주시에서는 선생님이 빵집을 단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바로 '수복빵집'.

○위치: 경남 진주시 축석로 201번길 12-1(명안동 151번지)

○전화: 055-741-0520

○운영시간: 매일 12:30~15:30까지 재료 소진시 마감하기도 한다

○메뉴: 편빵, 단팃죽, 꿀빵, 팔방수를 판다. 편빵(4개/1인분) 3000원, 팔방수 6000원.

쫀득한 빵 위에 달달한 단팃 소스가 얹어진 편빵이 대표 메뉴인 수복빵집은 편빵뿐만 아니라 꿀빵, 단팃죽, 그리고 팔방수까지 판매 중이다. 수복 빵집의 편빵을 직접 먹어보니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였다. 속에 팔이 든 편빵과는 달리 미끈한 단팃 소스가 애워싼 수복 빵집의 편빵은 입안에 달콤함을 더해 주었다. 진주 대표 빵맛집이며 SNS 생활의 달인 등 여러 방송에도 전파를 탄 유명한 곳이다.

[진주 대안동 디델리 라볶이]

라볶이가 탕길 때, 우리는 차없는거리 디델리로 간다?



디델리 라볶이

★디델리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길 3-1(대안동 14-5) 차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사장님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주메뉴는 라볶이와 참치김밥이다. 라볶이 5,000원/ 치즈라볶이 6,500원/ 참치김밥 3,000원이다. 사장님께서 라볶이 그릇 뜨겁다고 조심하라고 말해주신다!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주 디델리는 중고등학생들의 단골집이죠 그 단골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찾는 집인 것 같아요. 치즈라볶이 강추합니다. 갈 때마다 항상 그 맛인 것 같아요. 라볶이 안에 가래떡도 있지만, 떡국떡도 있고, 만두, 계란, 라면사리가 있어 좋아요."

[하대동 마라탕 맛집 라맛콩부]

얼얼할 마, 매울 라
인싸 음식 마라탕 도전기!



마라탕 라맛콩부

행한다. 화궤와 비슷한 종류이며,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동북지역에서는 마라탕(고추)이라고 불리며, "쓰촨 마라탕"이라고 불리는 음식과는 그다지 비슷하지 않다. 고추를 육수에 담가 사쓰촨처럼 먹는 마라탕도 있으며, 원하는 재료를 담아 한번에 조리하는 마라탕도 있다. 마라탕은 얼얼한 맛을 내는 중국 향신료를 이용해 만든다. 마라는 얼얼할 마(麻), 매울 라(辣)라는 뜻으로, 맵고 얼얼한 탕 요리이다. 마라탕의 허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은 화궤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각종 sns에서 유행 중인 마라탕, 마라탕은 중국 사쓰촨에서 변형된 중국 전통음식이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중국 음식 특유의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 시원한 국물 육수에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인 얼얼한 국물 맛이 특징인 탕 요리이다.

-위치: 진주시 모덕로 221(하대동 343-10번지)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11시

-휴무일: 24째 주 월요일은 쉽니다.

얼얼할 마(麻), 매울 라(辣)

쓰촨 라산에서 유래한 중국의 음식이다. 특히 베이징에서 유

춘천 닭갈비 본점

[춘천닭갈비 진주본점을 찾아서]

삼현여중 앞, 춘천닭갈비, 짬뽕닭갈비가 생길 정도의 닭갈비 클래스



삼현여고 닭갈비만 브랜드(?)가 생길정도로 유명한 학교 앞 맛집의 선두주자, 삼현여고 앞 춘천닭갈비다. 식당안은 늘 손님으로 가득하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삼현 닭갈비를 찾는다. 90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고 한 끼 식사로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둘러앉은 학생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0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고 한 끼 식사로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둘러앉은 학생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치: 경남 진주시 포곡로 122 (상대동 삼현여중 앞)

-영업시간: 매일 11:00 ~ 24:00 (일요일 휴무) / 14시부터 17시까지는 브레이크타임이다.

[가좌동 '사마'를 찾았습니다]

요즘 난리 난 육즙폭탄 대창뽕밥!
직접 드셔보셨나요?!



사마는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다. 일본식 카페 전문점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다. XNO JAPANX 최근 일본분매운동 때문에 걱정이지만 일본브랜드도 아니고 일본산 식재료도 아니니 편하게 찾아도 될 듯하다.

조금 골목길에 있지만 대학 근처에 자리한 만큼 분위기 좋은 외관으로 시선을 끈다. 일식집의 동양적인 분위기와 약간의 서양적인 건물 모습이 세련되게 어울린다. 최근 맛집으로 등극하며 피크타임에는 웨이팅도 있고 오후만 되면 재료가 항상 소진 되는 핫한 식당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64번길 3-1 1층 (가좌동 1436-5번지)

-영업시간: 평일 오전11시~오후9시(3시~5시 브레이크 타임) / 주말 11시 30분

[가좌동 유부집을 가다]

가성비 끝판의 든든한 한 끼. 이런 대왕 유부초밥은 처음이지?



일느낌인 테이블이 독특하다. 테이블 2인석이 6개 정도, 그리고 4인석 1개다. 카운터로 가서 주문과 동시에 선결제 하는 시스템이다.

○셀프코너가 있다. 식기, 물, 육수 등은 셀프바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저, 앞접시, 칼바나, 물, 육수 모두 셀프다. 음식도 직접 가져가러 가야된다.

○초밥 종류는 여섯가지. 유부초밥 가격대는 2피스에 3600~4200원 사이. 기본 맛인 참치와 계란은 3600원, 고기는 3800원, 새우는 4200원이다. 유부초밥 한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피스 가격으로 꽤 괜찮다는 평이다.

유부집

SNS 상에서 10대에게는 금강 맛집으로, 20대에게는 분위기와 맛있는 안주로 소문이 자자한 '곰보이 곱창' 맛집. 위치는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 내려면 도보로 3분 정도에 위치. 진주점은 과거에 쪽을 해 6월 오픈했고, 올해 8월 가좌동 경상대점도 오픈. 간판부터가 레트로 느낌 뽐낸다. "진주점-진주시 동진로 34번길 7-1/ 경상대점-진주시 진주대로 552 유시티 1층 112호"

○영업시간: 진주점은 16:00~2:00까지. 경상대점은 마감시간이 한 시간 늘어난 16:00~3:00다. 점심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니 저녁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 직화곱창 10,000 / 직화막창 12,000

○기본 상차림은 어묵탕, 각종 소스, 마늘과 고추, 양파장아찌, 상추다. 소스는 마요네즈(+고추냉이)칠판 소스쌈장 이렇게 3가지인데 고추냉이가 1도 안 매워서 마요네즈에 많이 섞어 먹어도 하나도 안 맵다. 기본으로 나오는 어묵탕? 유부? 후추맛 짭짤하고 의외로 맛있다. 이곳은 어묵탕 맛집!

○눈꽃 치즈를 추가하면 사장님께서 눈꽃 치즈를 뿌린 뒤 토치로 불을 쬔다. 먹고 난 뒤 곱창을 남겨서 볶음밥은 필수

10시면 왜 모두 청소년 유해장소가 되는가?

PC방 노래방 10시 출입금지 전면 재검토되어야...

청소년들은 PC방, 노래방에 자주 간다. 시간을 때우러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기도 한다. 이 장소들은 공통점이 있다. 밤 10시부터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만고의 진리처럼 된 규제다. 하지만 대체 왜? 9시59분까지는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며 친구들과 함께 있던 공간이 1분 만에 불법장소, 청소년 유해 환경이 되어 버리는지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가 있다. 노래방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마숙하

고 어린 청소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10시 이후에는 안전한 집에 있으란 애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실 청소년들에게 10시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고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이다. 같은 시간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마칠 즈음이고 학원가에는 학생들로 넘쳐나는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있거나 편의점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괜찮고 건전하며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에 있으면 불법이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래방과 PC방이 유해 업소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과연 PC방과 노래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일까? 아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다.

숨통처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마저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을 완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옳지 못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10시 이후 그 어떤 곳에서도 청소년들은 있으면 안 된다. 모두 강제 귀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야간자율학습,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되고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놀면 안 된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이야기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또 학교를 마치고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그 외에도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환경속에 거의 유일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자 놀이공간이 노래방과 PC방인 셈이다.



10시라는 기준을 두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화공간이자 스트레스 탈출구인 PC방이나 노래방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분명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백 번 양보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보더라도 출입규제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PC방과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을 내 쫓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잘 놀게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 그것이 곧 청소년을 진정 보호하는 길이다.

[취재/ 김익석(대아고2)기자]

저도 급식먹고 싶어요

학교에서부터 식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반박불가 급식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행복할 시간일 것 같은 이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런 학생들이 있다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보아라. 주로 고기류,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선호한다. 그런 음식이 많이 들어간 날은 '맛있는 날' 이라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맛없는 날' 이라고 하며 급식을 많이 남기거나 먹지 않고 다른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연 누구에게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날' 일까? 하지만 채식주의자나 여러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맛있는 날' 은 그들에게

는 맛있는 날이고, '맛없는 날' 은 그들에게 맛있는 날이거나 괜찮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채식주의자는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급식을 잘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 어패류, 과일, 유제품, 밀가루, 견과류 등 음식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면 급식을 먹기 힘들어 한다.

'x' 고등학교 a양은 "저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저희 학교에 주로 고기음식이 나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매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먹어요." 라고 말했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b양은 "저는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해서 먹으면 바로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급식을 하지 않았고, 급식에 유제품이 나오면 힘들죠." 라고 했다.

이런 조금은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식소수자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여러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스스로 취사 선택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정해져 있는 식단대로 일괄적 배식을 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과연 주위의 소수자들에게 대한 인식과 배려가 충분한지 자주 돌아봐야 한다. 학교에도 분명 이러한 식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식생활에서도 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먼저 인식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소수자들에게 '왜 안 먹어? 한번만 먹어봐' 하며 그들의 상황을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들이 눈치를 받고 강요를 당하기 일쑤다. 이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식생활에도 소수자



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다. 그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 변화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학교에서 먼저 식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크고 작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 민세진(진주제일여고2)기자]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불편한 진실

학생들에 대한 불신이 똥 놀 자유를 침해하다니...

이런 변이 있나? 누구나 화장실을 들어 설 때 급하거나 속이 힘들 때다. 그러나 일을 마치면 평화가 찾아 온다. 아플까 그런데 화장지가 없다. 식상한 유머나 코미디의 한 장면 같지만 실제로 당신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당황스럽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다. 공중화장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왜 학교는 다른 것일까? 날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왜 화장지는 찾을 수 없을까?

진주고, 대아고, 명신고, 삼현여고, 진주여고, 경진고, 경해여고 등의 학교에는 화장지통이 개별 화장실 안에 비치되어 있지만 막상 화장지를 넣어 놓지는 않는다.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향해 달리더라도 화장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안타깝게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화장실과 다소 거리가 먼 곳인 교실 안 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다. 이럴 경우도 여러 번이 하나의 휴지를 사용하니 턱없이 화장지가 부족하기 일쑤라고 한다. M고의 한 학생은 '거의 모든 학생이 화장지를 들고 다닐 정도예요. 화장지도 학교에서 개인 필수품이 되어 버렸어요.' 라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배변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배변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왜 화장실 안에 화장지가 사라져 버린 것일까?

학교에서 말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화장지 사용이다.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면 학생들이 주인 의식 없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막 쓴다는 것이다. 화장실 용도 이외로 쓰기도 하고 몰래 가져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화장지 사용에 대한 불신이 화장실에 화장지를 둘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결정일까? 분명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동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공동체 생활이고 예의고 배려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하고 토론해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지 학생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휴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옳은 일도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교육은 단순히 교실에서 수업만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사귀고 웃고 즐기며 고민하는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일 것이다. 화장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학교, 그것이 정상



일리는 없다. 학생들의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학생들 화장실 화장지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생들은 화장실 화장지 비치할 권리가 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늘어도 아무 문제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화장지를 걸어보길 바란다.

[취재/ 한재덕(진주고1)기자]

그래, 학생다움이 대체 뭔가?

불분명한 통제와 제한보다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학교를 다니는, 또는 다녀본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학생답게" 또는 "학생의 신분에 맞게" 모두들 대중 느낌은 오지만 정작 이 말뜻을 아는 사람을 거의 없을 것이다. 대체 이 문구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개인적으로 학생다움은 우리에게 학생으로써 FM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기본 베이스,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지키고 학교와 타협하며 조용한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싶다.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물어보았다. 대개 비슷했다. 학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식어,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많았다.

물론 '학생다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듯 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학생다움이라는

단어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죽인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교칙으로 제한하는 두발, 교복 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뽐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시대착오적이다. '머리가 길면 공부 안 한다.',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생답지 않다.' 등은 너무나 구시대적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1항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적혀 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소년 역시 그들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학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조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과 정의를 배운다. 교과서에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학교란 곳에서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다양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옳지 않다.

학생이니까, 학교니까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공동체공간이니까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룰을 스스로 지키며 룰을 어겼을 때에도 함께 합의한 처벌을 주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것이 훨씬 더 교

육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처음엔 서툴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학생들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목표, 가치관 모두가 다르다. 똑 같은 사람은 없다. 그 다양함을 한마디 말로 획일화 시킨다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 다움'이라는 불분명한 말로써의 학생들을 통제와 제한하기 보다 이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올바른 가치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취재/ 광성민(진주고1)기자]

우리는 성적 노출을 원하지 않아요

성적은 중요하고 내밀한 개인정보, 공개 권한은 오직 학생 본인에게

보통의 학생들은 1년에 4번, 한 학기에 2번은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이 끝난 날, 누군가는 출가분한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망친 시험지를 들고 착잡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선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훗날 학창시절을 추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시험'일 것이다. 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공부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시험은 이렇게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항상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험 스트레스의 복병이 있다. 학교에서는 시험이 끝나면 교사들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학생들에게 성적 결과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틀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바로 이러한 성적 검사 때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성적 검사는 교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반장이 검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성적 검사를 하면서 반 학생들의 성적을 무작위로 주며 사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남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자신 성적을 친구들이 본다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의 성적을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나의 성적을 누가 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성적은 학생에게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성적은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지 꺼려 할 정도의 자극적 개인적인 정보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아무 동의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권한을 학교나 교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다. 분명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의도치 않은 성적 공개에 큰 거부감을 가지

고 있다. 비교되는 점수에 수치심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하다.

어른들이나 교사들은 큰 문제의식 없는지 모른다. 어이없게도 성적공개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고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그렇지 못한 학생이든 자신의 성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성적은 분명 해당 학생의 것이다. 중요하고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다. 그것의 관리는 신중해야 하고 공개 역시 오직 학생 본인에게만 권한이 있다.

성적은 학생들에게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이고 누구에게는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성적이 공개되었을 때, 학생들이 받아야 할 열등감과 스트레스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서열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쟁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과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물어 보았을까?

더구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요즘, 정작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속에서 차별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무감각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성과 순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한다.

[취재/ 정예림(진주여고2)기자]

성관계 없는 성교육, 흥철없는 흥철팀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성교육이 문제다

성교육하면 학생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생물시간 아닌가요?' '정자, 난자 이야기지..'. '똑같은 레퍼토리의 비디오' 한결 같은 대답일 것이다. 또 성교육 시간은 잡자는 시간쯤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많다. 대체 세상을 초단위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성'은 금기의 대상이긴 할까?

우리나라의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성교육의 핵심인 구체적인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물론 성관계 관련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대중이다. 정의를 알려주는 것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이다. 성문제로서 가장 핵심인 성관계에 대해 접근을 막고 대체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무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성교육 길지도 않은 성교육 조차도 청소년 연간 경험률 78.6%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교육을 가장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제대로 된 성관계 관련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교과서에도 없고 성교육시간에도 없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보수적인 학교와 교사의 태도, 학부모의 민감한 입김, 학교에서 성교육은 성관계 없는 성교육이 된다. 성교육이 사라진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성관계를 독학으로 터득해야 하는 현실이다.

성관계 관련 교육은 중요하다. 성교육은 남녀간 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성관계가 빠진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성교육은 무용지물이 된다. 성관계에 대한 무지는 포르노나 불법 촬영 영상같이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한 오염된 정보를 맹신하도록 하고 성에 대한 비뚤어

진 시각과 오해를 낳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은 2018년 중학생은 2.6% 고등학생은 8.5%에 이른다. 또한 성관계 시작 평균연령은 남성 13.3세, 여성 14.4세로 그 연령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과연 이들은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성교육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 내용 역시도 콘돔 사용법에서부터 성관계 방법에 대한 것까지도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 때, 아니 더 이전부터 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히면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서 성은 감춰야 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누구나 제대로 잘 알아야 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정확히 자세히 일상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성'이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아동이나 아성에 우리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맡겨 둘 것인지 조금은 답답하다. 성교육, 이제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청소년에게 섹스가 문제가 아니다. 성교육이 문제일 뿐이다.

[취재/ 광경규(명신고1)기자]

[특집-JOB을 잡아라] 사라질 직업, 미래의 직업

중고생 희망직업 BEST5

그렇다면 미래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인가?

중고생 희망직업 부동의 1위는 교사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초등학교들은 지난해에 이어 운동선수를 희망직업 1위(11.6%)로 꼽았다. 교사가 6.9%로 뒤를 이었고 '유튜버'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초등학교들도 5.7%를 차지해 의사(5.6%)보다 다소 많았다. 이어 조리사(요리사)가 4.1%로 5위를 차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 교사는 교육부와 직업원이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중·고생 희망직업 부동의 1위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들은 이공계 계통의 의대, 치대, 약대, 컴퓨터관

련 공대이고, 문과계통은 법학, 경영, 경제, 국제학, 심리학, 신방학 등이다. 인기 직업군으로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방송PD, 아나운서, 심리상담가, 교수, 국제학전문가 나아가 교사, 공무원, 대기업사원 정도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전공은 특기자전형, 수시, 정시 등 어떤 전형이든간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직종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 준비기간, 대학 재학기간, 직업준비, 체험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직업들이 과연 미래사회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10년 후, 20년 후 미래사회에서 그 직업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세대별 희망직업 BEST5]

순위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1위	운동선수	교사	공무원
2위	교사	경찰관	관리사무직
3위	크리에이터	간호사	개발자-IT관련
4위	의사	컴퓨터-SW개발자	변호사, 의사
5위	요리사	군인	서비스업

대학생 희망 취업 1위는 공무원

대학생들의 희망 취업 직업 1위는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업 선택시 연봉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974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직업'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이 꼽은 취업하고 싶은 직업군 1위는 공무원(18.3%)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에 이어 관리·사무직 종사자가 14.9%로 공무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최근 언택트 근무환경 변화로 뜨고 있는 개발자·빅데

이터엔지니어 등 IT 관련직이 12.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11.4%)과 서비스업 종사자(11.2%), 연구직 종사자(8.4%), 크리에이터(유튜버 등)(8.1%), 금융권 종사자(7.8%) 등도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군으로 꼽혔다. 이들 직업군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어서(31.1%)와 '안정적인 직업'이어서(27.7%)가 가장 많았다.

미래학자 토마스메레이의 예언

2030년까지 일자리 절반이 사라진다.

다가 올 미래산업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



직업은 유기체와 같다. 직업은 탄생해서 성장하다 수요가 없어지면 쇠퇴하며 사라지는 과정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는 얘기가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40억 개 중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의 말이다. 현재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지고 80%이상의 직업이 없어지거나 진화한다고 한다. 무인자동차시대의 서막이 이미 열렸고 드론의 상용화가 눈앞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2030년 초등학교들이 직업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것이 토마스프레이의 이야기다.

그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억 명

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도 아니라 한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토마스메레이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일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말한다. 차세대 일자리는 미래 산업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수많은 직업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3D프린팅 기술, 드론, 무인자동차 등의 미래산업이 미래의 유망 직업군을 만들 것을 예측하고 있다. 조금은 먼 훗날의 얘기 같지만 이미 그 미래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 40억 개 중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차세대 일자리는 미래산업에 있다



JOB을 잡아라



과거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 미래에 유망한 직업은?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AI기술의 급증 및 전자기계의 발전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많은 직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지난 5월31일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생산 중단과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소멸된 직업 18개는 사전에서 빠졌다. 플라스틱영상패널관련 생산직, 영화(필름)자막제작원, 필름색보정기사, 테니스라켓 제작 관련 직업은 더 이상 종사자가 없어 한국직업사전에서 삭제됐다. 이에 많은 학생들은 과거와 다르게 없어지지 않는 직업을 찾아야 하는 추가적인 고민이 생긴 것이다. 부모세대들이 겪지 못한 일이라 조언을 구할 곳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재무관리 전문 미디어 그룹인 키플링어(Kiplinger.com)는 미국 내 미래 유망직업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이 직업의 생성과 쇠퇴, 그리고 기존 직업의 직무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 직업세계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

1위	시계 수리기사	11위	자동차 전기 기사
2위	조립식 주택건설업자	12위	조립기술자
3위	섬유기계 기사	13위	플로어 매달사
4위	직물 수선기사	14위	기계 기사
5위	신발기계 기사	15위	삼합 감시원
6위	염사 기사	16위	꽃 디자이너
7위	사진 현상기사	17위	애나운서
8위	도배공	18위	도박사
9위	법복공	19위	보조 약사
10위	전화 교환수	20위	시신 방부처리기사

미래의 유망직업

1위	앱 개발자	11위	치과 위생사
2위	임상 간호사	12위	관리자
3위	건강 서비스 관리자	13위	경영 연구 분석가
4위	재무관리사	14위	간호사
5위	시장조사 분석가	15위	언어 병리학자
6위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	16위	초음파 검사기사
7위	정보 보안 전문가	17위	물리치료보조사
8위	보조 의사	18위	호흡요법사
9위	의사	19위	서비스 영업 사원
10위	물리치료사	20위	통계전문가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직업

1.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데이터 저장소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 한정된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 2.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3.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 (기계 같은 컴퓨터 목소리가 지루하게 들린다면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가 역할을 할 타이밍) 4.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의 데이터를 노리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범죄에 맞서는 직업도 인기를 끌 직업) 5.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6. 데이터 모델러 등 많은 직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직업들은 준비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일이다.

3D프린팅 기술 관련 미래직업

1. 3D 프린터 소재 전문가 2. 3D 프린터 비용 산정 전문가 3. 3D 프린터 잉크 개발자 4. 3D 프린팅 패션 디자이너 5. 3D 음식 프린터 요리사 6. 신체 장기 에이전트 7. 3D 비주얼 상상가

드론의 시대 미래 직업

1. 드론 분류 전문가 2. 드론 조종인증 전문가 3. 환경오염 최소화 전문가 4. 악영향 최소화 전문가 5. 드론 표준 전문가 6. 드론 도킹 설계자 및 엔지니어 7. 자동화 엔지니어까지 예상되는 직업이 아주 다양하다. 특히 드론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에 능통한 분류 전문가 또 드론 면허를 인증해주는 전문가, GPS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드론을 제어하는 자동화 엔지니어들은 촉망받는 미래 직업으로 꼽힌다.

무인 자동차 산업 일자리

1. 교통모니터링 시스템 플래너, 디자이너 운영자 2. 자동 교통 건축가 및 엔지니어 3. 무인 시승 체험 디자이너 4. 무인 운영 시스템 엔지니어 5. 응급상황처리 대원 6. 충격 최소화 전문가 7. 교통 수요 전문가 등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특집-대학N진주] 숫자로 본 대학의 현주소

2021년 대입 수능 그리고 사라지는 대학들

2021학년도 대입 응시생과 대학 정원 비교

2021년 대학 모집인원은 4년제와 전문대학 등을 포함한 550,659명, 대입 응시생수 533,941명이다. 산술적으로 수험생 수 16,718명이 대입정원에 부족한 수치다.

수능 응시자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20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548,734명으로 전년 대비 46,190명이 줄었다. 202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가 대학에 진학하던 2019학년도에 수능 응시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서 앞으로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학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학 정원의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수험생 수가 줄어들어 따라 대학들도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채울 묘수가 없어서 항간에는 '뱃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교협이 발표한 198개 대학의 총 모집인원은 34만7천명이다. 전국에는 198개의 4년제 대학이 있다. 경상대 등 국립대학교 28개, 서울대와 인천대 국립법원대학 2개, 진주교육대 등 국립교육대학 10개, 경남대 등 사립대학 151개, 과학기술부 부설 특수대학 4개가 있다. (*사립대학원대학 43개, 사립사이버대학 21개) 전문대학은 138개교다.

[2021년 대학 모집정원]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고3 학생수
2021학년도	267,374명(77.0%)	80,073명(23.0%)	347,447명	457,674명
2020학년도	268,776명(77.3%)	79,090명(22.7%)	347,866명	510,241명
2019학년도	265,862명(76.2%)	82,972명(23.8%)	348,834명	570,661명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



대학 등록금, 얼마나 될까?

구분	등록금 최고 TOP10 (2019)			등록금 최저 TOP10 (2019)		
	대학명	유형	금액	대학명	유형	금액
1	연세대학교	사립	9,154	중앙승가대학교	사립	1,760
2	영지대학교	사립	9,118	영산선학대학교	사립	2,000
3	카톨릭대학교(2)	사립	9,115	광주과학기술원	특별법인	2,060
4	신한대학교	사립	9,079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2,390
5	울지대학교	사립	9,078	한국고원대학교	국립	3,183
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립	8,995	한국전문과학대학교	특별국립	3,268
7	중앙대학교(2)	사립	8,658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3,409
8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8,653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3,738
9	인제대학교(2)	사립	8,556	안동대학교	국립	3,749
10	신한대학교(2)	사립	8,54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립	3,770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 81.6%, 대한민국 사립대 등록금 연 평균 742만원, 대한민국 국립대 등록금 연 평균 419만원이다. 의학계열 평균 등록금 1000만원 이상, 예체능 779만원, 공학계열 714만원, 자연과학계열 679만원, 인문사회계열 596만원.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연세대학교 915만원, 국립대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서울대학교 601만원,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학교 176만원.

자녀 1인 교육비용은 얼마나 될까?

대학생은 등록금에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용돈, 교재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합하면 연 2,00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조사가 있다. 22년간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3억 정도가 들어간다.



가장 넓은 면적의 캠퍼스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로 총 면적이 3,175만 3235㎡에 이른다. 2위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대학교로 총 면적은 2,247만 4804㎡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학교가 3위이며 그 면적은 1,058만 6937㎡으로 2위의 절반 크기다.

4위와 5위는 각각 경북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차지했다. 경북대학교는 743만 2876㎡, 경상대학교는 565만 3861㎡의 규모를 자랑한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대학교가 부지 면적 408만 5558㎡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7위는 369만 820㎡의 면적을 가진 건국대학교,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는 가장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다. 8위와 9위는 호서대학교와 부산대학교로 각각 353만 4858㎡, 350만 404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가 321만 1222㎡로 그 뒤를 따르는데 전국 랭킹은 10위다.

2021 수능 결과 분석 N수생 국어 영향력↑... 최저학력기준이 관건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겨웠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다. 예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수능은 이미 치렀고, 결과 또한 확인했다면 이제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입지원 전략에 앞서 필요한 것은 이번 수능에 대한 분석이다. 내 성적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유리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크게 'N수생 강세', '국어 변별력 상승',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세가지 키워드로 꼽을 수 있다.

특징 1. 지난해에 이어 졸업생 영향력 높을 것

전년도 수능 응시 인원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2020학년도 대비 6만3703명이 감소한 42만 1034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은 전년대비 5만2649명이 감소했으며, 졸업생은 1만1054명이 감소했으나 전체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p 높아지면서 올해 정시에서 졸업생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 2. 수학 가형, 과탐 응시 비율 증가

올해 수험생 수가 크게 줄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응시자가 모두 감소했으나, 수학 가형, 과탐 응시 비율은 다소 증가했다. 의학계열 등 자연계 선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징 3. 국어 영역 만점 및 1·2등급 인원 감소, 상위권 변별의 key

올해 국어 영역 만점자는 151명(0.04%)으로 지난 해 777명(0.16%)에 비해 감소했다. 1, 2등급 인원은 전년도 수능에 비해 1만1032명이 감소하면서 국어 영역의 상위권 변별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 만점자와 1, 2등급 비율이 모두 감소한 국어 영역이 상위권을 변별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학 나형은 만점자 수는 증가했지만 1등급은 1806명, 2등급은 3503명, 3등급은 3163명이 줄면서 3등급까지 전년 대비 8472명이 감소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뿐 아니라 정시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징 4.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국어가 변수

올해 영어 영역 1등급 인원이 크게 증가했으나, 국어 영역 및 수학 나형에서 1, 2등급 인원이 감소하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집 인원의 변화는 경쟁률 및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1월 5일 이후 발표되는 대학별, 학과별 수시 이월 인원을 확인해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징 5. 영어 1등급 비율 12.66%로 절대 평가 도입 이후로 가장 높아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응시자의 12.66%가 1등급을 받으면서 절대 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만 7257명 증가한 수치이다. 영어 영역의 1등급 인원 증가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은 어느 정도 만회될 것으로 보이며, 정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어 영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기고] 필통기자단 대표 허윤지

청소년신문 필통, 나는야 자랑스런 필통기자입니다

진주교육청이
매년 발행하는 기관지
'진주교육'에 실린 기고글입니다.

필통기자단을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아직도 필통기자단의 면면을 잊을 수 없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고 막 벅차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필통엔 배움, 추억, 친구들,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처음부터 필통기자단 대표가 된 지금까지를 글로 옮기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필통은 설렘을 준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그 겨울 어느 날, 조금은 두근거렸던 도전을 했고 필통기자단의 면접을 봤고 합격했다.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한 참을 푹푹푹푹 뛰며 기뻐했다. 겨울방학 '필통 기자 학교' '필통기자단 MT'가 이어졌고 선배,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필통 기자증을 목에 걸고 그렇게 나의 필통일기, 그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난 필통기자단 활동이 단순히 기사를 쓰고 신문을 만

드는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성별이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일은 특별한 경험이다. 또한 필통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생각을 쓰고 말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제공했다. 스크랩 발표, 3분 스피치, 300자 쓰기, 토론 등 상대를 존중하며 지금의 자기생각을 편하게 얘기하도록 했다. 또한 기사를 위해 취재하는 과정은 그 때 그때가 새로움과 배움이었고 작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물론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고 학생으로 본분을 다하는 것
그러나 나의 빛나는 10대 청춘의 시간을
더 배곡히 윤기나게 채워주는 필통이 참 좋다"**

가끔씩 대표님이 말한다. "시간이 지나고 항상 너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필통기자단이 너희의 청춘에 그렇게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분명 필통에서는 학교나 학원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나를 열심히 했다.

필통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진주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기관에 배부 된다. 필통신문을 맡고 그대로 청소년신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만드는 거의 유일한 미디어다. 매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편집회의를 하고 매 달 기사마감을 위해 학생기자들의 노력과 열정 또한 실 새가 없다.

당연하게도 필통은 청소년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사들로 24면

불편해 하고 못마땅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나 또한 실제로 가끔 겪는 일이다. 다른 기자들도 기사 내용으로 교장실이나 교무실에 불려가 지적을 받기도 하고 혼쭐이 난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학교나 우리 교육 현실 등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다. 또한 부정적인 기사 내용이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다.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막으려고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물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떨 땐 마음에 작은 상처가 남기도 한다.

신문에 내 이름이 적힌 기사를 볼 때면 자부심만큼이나 책임감도 생기고 스스로 부족함에 반성을 할 때도 많다. 반복되는 이런 경험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는 것을 느낀다. 필통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했다. 무엇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챙기게 했다. 또한 나 아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키워준 것 같다.

최근엔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보편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하는 도의원님과 간담회에 참석해서 청소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세



기자 허 윤 지

Feel Tong
진주교육청기관지

월호 참사의 유가족분들을 만나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지금은 또 12월호 필통 기사를 준비 중이다. 물론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고 학생으로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나의 빛나는 10대 청춘의 시간을 더 배곡히 윤기나게 채워주는 필통이 참 좋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의 10대를 논할 때 필통은 절대 빼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진주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청소년신문이 있다. 난 오늘도 필통기자단 친구들과 먼 훗날에도 설레임과 반짝거리는 추억으로 기억 될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다. 그 주인공으로 부끄럽지 않은 필통기자 허윤지가 되어야겠다.

[필통편집국]



〈필통에서는 매년 겨울방학 기자단 MT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기자단 대표를 선출합니다〉



〈매주 토요일 2시면 필통사무실에서 기자단 편집회의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필통기자로 최종 합격되면 기자증과 기자수첩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3분스피치를 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를 일상으로 만드는 필통기자단 활동〉



〈필통은 청소년이 직접 취재해서 만드는 진짜 청소년 언론입니다〉



〈진주교육청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2020년 진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T.O. 서영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널 지켜 봐 왔어, 너가 너무 예쁘더라고, 날이 좋아서, 네 생각이 나서, 하하. 요즘 들어 윙이가 조금씩 생각더러고, 그래서 윙이 내보려고 서영아 너 나만의 뮤즈, 슈퍼스타, 아이돌로 데스 너의 얼굴부터 길쭉한 피치 킬까지 말야, 완벽해, 넌 태어난 게 오쿠데까마스 하거든. 그럼, 씨유 어게인.

-FROM 박종서



T.O. 약한 친구

아이, 김재성 약한 친구야.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알고 위아가 편지 썼다. 친구에 약한 찌꺼기 같은 애들 밖에 없어서 심심하잖아? 보고 있나? 이 주영, 아재욱, 정현우, 쫓으면 맛고 땀 가지 말고 신전 사라. 사랑하는 많이 아픈 친구 녀석아 사랑한다. 뼈아-

-FROM 꿀꿀이

T.O. 팡택 회야 국산 행오



팡택, 회야, 국산, 행오, 졸업 축하하고, 덕분에 힘들었고 즐거웠고 재밌었다. 대학 실업팀 가서 도 최 계속 들고 학교 맛있는 거 들고 놀러와. 3년 동안 수고했어

-FROM moon



T.O. 가현

누나 안녕하세요? 필통에 무제표이라는 코너 늘 즐겨 봤었어요. 저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어요. 우리 서로 낯 간지워워서 눈도 못 마주치고 아색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누나는 18살 저는 16살이 되었네요.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는 하지 마요. 내가 잘하니까요. 그럼 잘 지내요.

-FROM 김영광

T.O. 강나원



공부는 잘 하지만 멍청하고, 코코몽, 두더지, 쥐, 햄지를 담은 빵을 좀 굽을 필요가 있는 듯해. 늘 아침에 빵을 으적 으적 씹어 먹는 거 하구 이틀도 아니고 진짜 걱정이 된다. 야, 너가 빵을 굽으려면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즐겨보는 필통에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빵 좀 그만 먹어라

-FROM 녹개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l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ileeltong1318>를 검색해 특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쫄머쫄우 동부동

애들아. 난 너희가 너무 좋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가고 한다고 뒤늦게 친해지고 막 놀았잖아 그래서 너무 아쉬워 ㅠ ㅠ 내년에도 같은 반 하자 제발! ㅠ ㅠ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졸업하고 나서도 자주 만나자. 안녕~

-from 작은애



T.O. 선명 3학년5반 친구들에게

2020필통 신문에 시작과 끝은 우리 반이야~ ㄱ ㄱ ㄱ

안녕 애들아 학창시절 마지막 고3을 너희와 함께여서 너무 좋았어. 우리 이제 대학 생이야! 막 설레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에 떨 리기도 하네. ㅎ ㅎ 코로나 때문에 우리 3학년을 제대로 못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아쉬워. 코로나가 정말 말짱도 해. 원래였으면 3월에 개학해서 PMS, 축제도 했을 테고 수능 끝나고 수험표 할인 받으면서 밖에서 놀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했어! ㅠ ㅠ

우리 코로나 끝나고 종종 만나서 놀자. ㅎ 우리 반에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대학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3학년 5반은 어떤 일을 하던 잘 할거야!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내년엔 파이팅 하고 졸업 잔식으로 축하해! 3-5

-from 3-5에서 아거 적을 사람 누군지 알지? 알거야 하하.

T.O. 2학년 7반에게

설레고 무서운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입학 하지 었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 말을 지나 10대의 마지막을 같이 바라보고 있구나. 코로나 19사태로 반 친구들과 친해질 틈도 없이 가장 그리운 학창시절을 허무하게 보내는 거 같아... 모두들 한마음 한 뜻으로 아쉬움만 남은 거 같아. 내년에도 꼭 다 같이 같은 반 되어 좋은 추억들만 만들어서 행복했던 학창시절로 간직하자.

마지막으로 엄청 이쁘시고 매력 넘치는 2학년 7반 담임선생님인 김태연선생님~ 말씀꺼리기 2학년 7반을 만났고 바르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꼭 선생님 반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성적으로 보답할게요~ 사랑해요! ㅎ ㅎ ㅎ

쌤 내년에도 저의 답답 해 주세요!! 선생님 없으면 못살아여! ㄱ

-from 송화



T.O. 경남체고 복싱부 수민이에게

항상 같이 방 쓰고 맨날 같이 운동 하나만 재미있네. 이대로 졸업하자. 내가 있으니까 힘내라. -from 경훈



T.O. 원송이들

두 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진주 동 명고등학교 김지현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현 이노요, 원송이를 담았어요. 약간 골격구조가 원 송이예요! 그래도 하는 짓은 사람다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넓은 친구예요. 그리고 엄청 약 오르게 생겼어요. 오 줌 포켓몬go에 꼭 빠져있던데 피카츄 좋아하 시는 여성분들 연락바랍니다!

그리고 진주 대마고등학교 이상환을 소개합니

다. 우리 창환이노요, 겉으로 보기에 진짜 바보 같거든요? 근데 생각 보다 귀엽습니다. 진짜 유머러스 하고 웃기 친구요. 공부도 저보다 잘 해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우리 창환이는 연하를 좋아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rom 형신



T.O. 1에

1에, 친구들 안녕! 나 어진이야. 처음 전학 와서 적응하느라 꽤 힘들었는데 다들 잘 대해주시고 고맙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기쁘다. 앞으로도 잘 부탁 해! 부끄럽네.

-from 어진



T.O.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아, 맘이 놀랐지?? 내가 너희 한테 편지를 처음 써보는데 너무 오글거린다. 우리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킬까? 지내자. 학교가 달라져 예전처럼 잘 못 보고 있는데 코로나 잠잠 해지면 모여서 놀자. 장소는 신예진 집이야! 사랑해 친구들! 우리 빨리 만나자.

-from 조은아



T.O. 내 군단들

성민, 인혁, 동훈, 만기, 지성, 민수, 영광, 준성, 상원, 도훈, 사진에 안 나와도 니들 다 소중한 친구니까. 내가 항상 표현도 못하고 좋아해서 투덜대고, 화나 도 투덜대고, 내 친구 해준다고 고생이 많다. 앞으로도 시간 많으니까 우리 우

점 함께하고 평생 만나면서 놀아나 하자. 사랑한다~

-from 갑병



T.O. 내배고 다 못생긴 호피들

호피, 안녕 저번에도 썼는데 이번엔 누가 젤 먼저 발견 하는지 딱 볼게. ㄱ ㄱ 어찌 저찌 자네다보니까 벌써 고2 끝이네. 우리 2021.12.31일 저녁 10시까지 올 집에서 모여서 놀라기로 한거 딱 기억하져. 까먹는 사람 있으면 아웃 시킨다. ㄱ ㄱ 끝까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얻어서 우리 마왕이 어른 되자. 호피 알라볼! ㅎ

-from 호피 중에 젤 이쁜애

